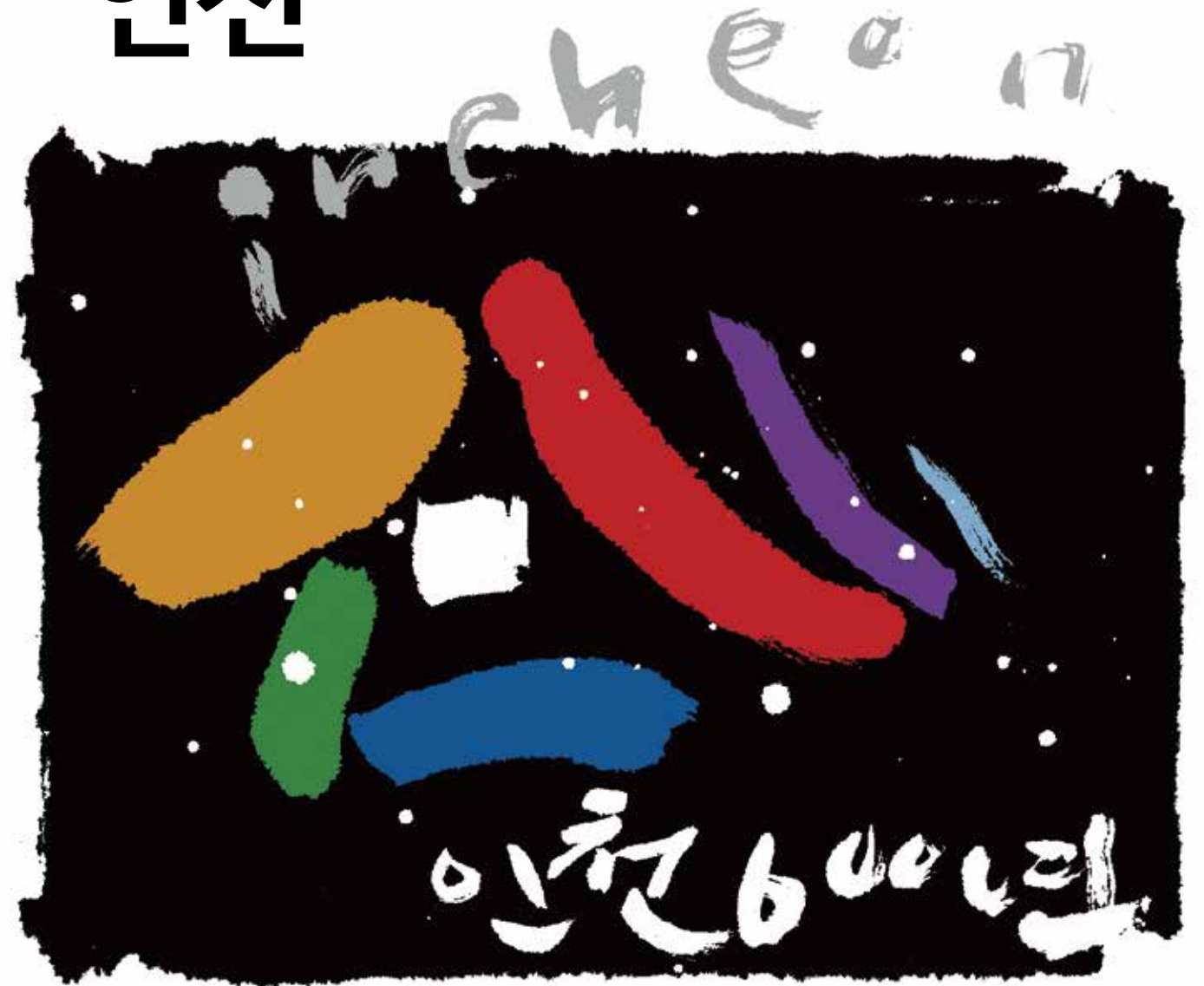




시민과 **通** 하고  
**和** 하는

‘연비어약(鳶飛魚躍)’  
인천이 시민의 소리를 담아  
시민과 함께 도약합니다!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30 / 2013.2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http://goodmorning.incheon.go.kr)과  
'인천시미디어' 앱과 소셜웹([social.incheon.go.kr](http://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굿모닝인천〉의 못다 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코드 촬영  
스마트폰인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인천시미디어〉 앱을,  
태블릿 PC인 경우 〈굿모닝인천〉 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  
(사진 더 보기 기능은 태블릿 PC에서만 가능)

## Cover Story



어려웠던 시절에도 정월초하룻날이면  
집집마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인천 정명 600년을 맞아  
한자 인천(仁川)으로 집을 형상화하였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집...  
우리 인천입니다.

김기충 作\_m.010-5131-3146



08



14

## CONTENTS

- 04 **Communication** 지나간 추억을 떠올린 시간 外
- 08 **Incheon Life** 전통시장 이용하기
- 14 **함께하는 인천** 마을공동체
- 18 **르포** 송림배구장
- 22 **동서남북**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 26 **인천인이 사랑한 오래된 밥집** 송의동 춘천막국수
- 30 **공감** 송영길시장의 시정일기
- 32 **아름다운 사람** 경인방송 iTVM 박근혜 아나운서
- 34 **Culture News** Band Day 外



18



52



26

- 38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산업화 시대의 인천
- 40 **시정뉴스** 원도심 도화구역에 제2행정타운 착공 外
- 44 **의정뉴스** 복지구현, 2014 인천AG 차질없는 준비 최선 外
- 46 **생활정보** 2월 문화행사 보러오세요 外
- 49 **건강칼럼** 수돗물불소화
- 50 **이달의 서평** 인문의 바다에 빠져라 外
- 51 **인천이야기** 사진 공모전 수상작
- 52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송도센트럴파크
- 58 **모닝 커피 한잔** 드라마고(퍼포먼스 반지하 대표)

## 08 시장에서 설날 장보기

설을 앞두고 평소 고마운 분들께 전할 선물을 챙기고 제수  
용품을 구입하느라 주부는 바쁘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장바구니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진다면, 전  
통시장으로 가자.

## 22 꼭! '할 수 있다'는 희망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우리시와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  
한 공공재활의료기관, 저렴한 비용으로 최첨단 재활시설을  
제공해,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이 운동하고 열심히 치  
료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열어 주고 있다.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3년 2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na1488 /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진 김보섭 · 김성환 · 홍승훈(자유사진가), 심영보 · 하정원(시 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 인쇄 웨스트코 T. 032-423-1988



## 소통과 화합 COMMUNICATION

# 인천과 통(通) 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굿모닝인천〉을 보고 느낀 점, 평소 인천에 대한 생각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 인천시 미디어 |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 | 인천시 SNS |

**소셜웹** (social.incheon.go.kr)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 (blog.naver.com/flyic)

social network  
twitter  
me2day  
blog  
facebook

### 지나간 추억을 떠올린 시간

〈굿모닝인천〉에서 동인천 지하상가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학창시절을 비롯한 예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만남의 장소였던 대한서림, 배부르게 먹었던 세숫대야 냉면, 하루 종일 한 편의 영화를 보던 애관극장 등 지나간 추억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순애 서구 석남1동

### 월미산 위에서 인천을 보고 싶어

〈굿모닝인천〉이번호도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가득하네요. 특히 ‘그곳에 서면 인천의 실루엣이 아름답다’ 기사를 흥미롭게 읽어보았습니다. 작고 낮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한줄기 굵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품 너른 산. 문득 월미산 위에서 본 인천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박찬용 전북 남원시

### 녹색도시 인천, 더 푸르게 푸르게

늘 새롭게 변화하는 〈굿모닝인천〉 잘 보고 있습니다. 애독자로서 조언하자면, 녹색도시 인천의 시정소식지답게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신경 써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시에서도 시민 환경동아리를 만들어 환경실천 운동가가 많아졌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이현숙 부평구 삼산2동

### 고향 소식 전해주는 반가운 선물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살고 있는 제게 〈굿모닝인천〉은 단순한 소식지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20년 이상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제게 인천은 ‘엄마’ 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이 이번 달도 설레는 마음으로 〈굿모닝인천〉을 기다립니다.

김경수 강원도 원주시

### 가보지 않아도, 인천에 있는 듯

인천에 살지는 않지만 〈굿모닝인천〉을 보고 인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 인천의 명소를 생생하게 소개해 주어 마치 직접 가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내용이 개선했 사항이 없을 만큼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권국형 전남 여주시

### 바다 품은 아름다운 인천

〈굿모닝인천〉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카페를 소개해 주어 재미있게 읽어 보았습니다. 아라뱃길, 을왕리, 월미도 등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인천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에 소개된 카페를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오봉근 서구 원당대로

##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세요.

## 인천만의 색깔에 자부심 갖길

독자. 강순애(남구 주안2동)



강순애 독자는 남구 주안동에서 10여 년째 보청기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가게를 찾는 어르신들께 〈굿모닝인천〉을 보여 드리며 소소한 행복을 전하고 있다.

〈굿모닝 인천〉과의 인연 지난해 남동구의 한 동사무소에서 처음 본 후, 내용이 좋아서 바로 전화로 구독신청을 했다. 현재 대여섯 권 받아서 가게를 찾는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다. 대부분 6,70대 어르신들로 모두 〈굿모닝인천〉을 좋아하셔서 책으로 챙겨 가시기도 한다.

〈굿모닝 인천〉 왜 좋아 인천과 인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깝게 알려줘서 좋다. 맛집이 나오면 직접 가서 먹어보고, 명소가 소개되면 직접 가서 보고 느껴본다. 또 시장님의 시장철학과 인천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다.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본다. 빼놓을 것이 없다.

**추천, 인천의 명소** 남동구청 뒤편 수산동. 봄에는 너른 들판에 싹이 파랗파랗하게 나고, 가을에는 배가 탐스럽게 열려 장관을 이룬다. 친한 친구 몇과 오솔길을 걸어 본 적도 있다. 도시에 살면서 그렇게 걸을 수 있는 데가 어디 흔한가.

**인천에 바라는 점** 〈굿모닝인천〉을 다른 도시에 사는 가족 친구에게 보내주면 다들 좋아한다. 예컨대 차이나타운 기사를 보고 인천에 이런 곳이 있냐, 며 꼭 가보고 싶다고들 했다. 인천만의 색깔에 자부심을 갖고 세상에 더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 @Bullo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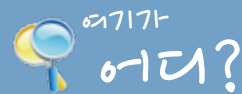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과 통하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독자 인터뷰**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어디일까지** 사진 속 인천의 명소를 맞춰보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재래시장상품권 1만원권 1장, 인터뷰는 2장)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 인천의 명소를 맞춰 보세요

힌트 : 이곳에 서면 인천항의 모습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 네 분을 선정하며 접수는 우편과 메일(bluelou7@korea.kr)로 받습니다.

## 지난호 정답자

홍성수 남동구 논현동 / 김병식 남동구 구월1동  
황현욱 부평구 안남로 / 김민정 남구 주안1동

## 인천시 새해 예산안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관련 자료 요청합니다. 시의회 본회의에 대한 자료도 열람하고 싶습니다.

2013년도 인천시 예산서는 인천시홈페이지(incheon.go.kr) 상단메뉴 소통과 민원 → 행정정보 → 재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icouncil.go.kr)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본회의에 대한 자료는 의회 홈페이지 상단메뉴 중 회의록과, 홍보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 인천서구영어마을 문 닫지 말아주세요. 학과와 달리 영어교육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였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세요.

현 서구영어마을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인천시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는 서구청과 영어마을 매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영어마을 매입이 큰 부담이나, 교육국제화특구로서 관내 학생, 구민에 대한 중단 없는 외국어 교육사업을 위해 영어마을을 지속 운영, 발전시키고자 인천시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존치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활동에 나이 제한이 있네요. 저는 빠른 98년생으로, 봉사하고 싶어도 나이제한 때문에 참여하지 못해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 참여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고등학교 이하 학생의 경우 장기간 자원봉사 참여(최하 16일 이상, 최고 32일 이하)할 수 없고, 대회기간 중에 중간고사가 겹쳐서 학교 측의 협조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대학1년생(만18세 이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했습니다.

## 7호선 부평구청역이 연장되었는데, 산곡동에서 구청역 인근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 불편합니다. 노선 검토해주세요.

7호선 노선이 연장되기 이전 서울방향으로 가기위해서는 부평역을 이용해 이동했기 때문에 원적로를 운행하는 노선들의 대부분이 부평역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상황으로 노선 신설은 어려우나 7호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인천에 사는 학생입니다. 월미은하레일은 언제쯤 개통하나요?

우리는 월미도권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월미은하레일사업을 추진, 시운전 과정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해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안전성 검증 용역을 의뢰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2013년 상반기 완료예정)에 따라서 개통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벚꽃가로수를 베어서 아쉬워요. 아름다웠는데...**  
호구포길 가로수(벚나무) 제거는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진행됐습니다. 벚나무 수목의 특성상 대형목(고목)을 이식할 경우 낮은 생존율과 이식에 따른 전정으로 당초의 고유 수형을 유지할 수 없어 경제적·경관적 가치를 고려해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개발사업의 준공 무렵 사업지구 건너편과 같은 가로수 및 가로화단을 조성해 쾌적한 도심속 녹지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팔아 인천에서 ‘잘 나가는 시장’으로 유명한 신기시장. 골목길 양쪽으로 쪽 늘어선 150여 곳의 가게는 대목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손님들로 북적인다. “20여 년 째 신기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데, 그 만큼 좋은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고기, 생선, 야채 등은 마트보다 시장이 훨씬 싸고 물건도 좋답니다.” 살림 경력 36년의 주부 9단 이옥란(남구 주안동·57)씨를 따라 남구 신기시장으로 설맞이 장보기에 나섰다.



제수용품을 장만할 때 성수품은 구입 시기를 조절하는 게 효과적이다. 과일은 신선도를 고려해 명절 3일 전쯤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설을 맞아 진열대에 소복히 쌓인 과일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 ‘대풍청과’에서 차례상에 올릴 사과, 배, 감을 고른다. 과일은 표면에 광택이 있고 흠이 없으며 만졌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것이 좋다. “향기 좋다~” 잘생기고 큼직한 것을 골라 담다보니 어느새 장바구니가 묵직하다. 올해 과일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마트보다 저렴하다.

대풍 청과 865-4625

## 지갑도 마음도 정성도 두둑이 시장에서 설날 장보기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엄마 설날은 오늘 이래요~’ 설을 앞두고 평소 고마운 분들과 전할 선물을 챙기고 제수용품을 구입하느라 주부는 바쁘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장바구니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진다면, 전통시장으로 가자. 곳곳에서 벌어지는 흥정, 실랑이 끝에 두 손 가득 쥐어진 봉투에는 정도 마음도 두둑이 담긴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임운석 자유사진가

생선 : 동태 2마리 1만원, 조기 5마리 1만5천원

과일 : 감 5개 5천원 + 사과 5개 1만원 + 배 3개 1만원





“아, 나물 참 좋고 싱싱하다~” 차례상에 올릴 삼색 나물은 ‘신기야채’에서 마련한다. 신기야채의 이정숙(59)씨는 73년 남편을 만나 신기시장에 터를 잡았다. 그리고 30여 년 설과 추석을 빼고 꼬박 가게 문을 열어 온 성실함으로 이 자리를 지켜왔다. 지금도 매일 새벽 구월농축산물시장에서 야채를 들여와 부지런히 고객의 식탁 위에 올리고 있다. 야채는 보기만해도 봄기운을 훑 끼칠 만큼 푸르고 싱싱하다. 가격도 착하다. 시금치가 한 근에 삼천원, 고사리와 도라지는 사천원. 마트라면 어림없는 가격이다. 여기에 덩까지 푸짐하게 얹어주니 장바구니가 벌써 묵직하다.

신기야채 863-5853, 863-6030

고기는 명절이 다가오면 가격이 오르므로 설 5일 전쯤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하지만 신기시장은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니 고맙다. ‘중앙축산’에서 산적용으로 쓸 한우 설깃살을 구입한다. 밝은 선홍빛 살결 사이사이에 가지런히 박힌 마블링과 반지르르 한 윤기. 딱 봐도 싱싱하다. 고기를 구입하기 전에는 등급과 원산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게 주부 9단의 설명. 차례상에 올릴 고기이므로 특별히 최상급인 1++로 고르고 생산자실명이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그런 면에서 이곳은 합격! 상인대학을 수료하고 경영대학원 상인 최고경영자 과정까지 밟았다는 이종성(56) 사장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10년째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오고 있다.

중앙축산 872-4657, 872-1456

차례상에 올릴 생선은 ‘신기수산’에서 산다. 이재덕(54), 최옥경(49) 부부가 신기시장에 터를 잡은 건 24년 전으로 지금까지 사이 좋게 가게를 지키고 있다. 생선은 최상급만을 고집해 그날그날 들여놓아 금방이라도 파닥파닥 살아 움직일 듯하다.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하는 정직함은 기본이다. 상에 올릴 조기는 만원에서 만오천원이면 실한 녀석으로 세 마리 혹은 다섯 마리 구입할 수 있다. 전을 부칠 동태는 큰 것 두 마리에 단돈 만원, 살이 단단하니 좋은 것으로 골라 건네니 능숙하게 포를 떠 준다. “괜히 단골인가, 잘 해줘~”, “어련히 알아서 잘 안 해줄까”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가는 흥정 속에 두 손 가득 쥐어진 봉투에는 정이 두둑이 담긴다.

신기수산 866-0809



야채 : 시금치 375그램 3천원 + 도라지 375그램 4천원  
+ 고사리 375그램 4천원  
고기 : 산적용 한우설깃 600그램 2만1천원 + 국거리용 양지  
사태 600그램 1만8천원, 부침용 다진 돼지고기 600그램 3천원  
떡 : 가래떡 4킬로그램 1만5천원, 콩가루편 3쪽 6천원

차례상에 올릴 마른음식을 마트에서 사려면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하지만, 시장에 가면 건어물가게에서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다. ‘진미 건어물’의 임홍락(58)씨는 15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상께 드릴 것이라 밤, 대추, 황태포, 꽃감, 유과를 욕심내어 한가득 바구니에 담으니, “유과는 이정도만 사도 된다”며 무게를 털어낸다. 무조건 큰 단위로 물건을 담아 파는 마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정직함과 곰살맛음이 단골들의 발길을 지금껏 전통시장으로 이끌었으리라.

진미 건어물 864-8796



설 차례상에는 밥과 국 대신 떡국을 올린다. 떡국에 넣을 가래떡을 사기 위해 ‘삼복떡고을’로 향한다. 권민철씨(38)씨는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 이대째 떡집을 운영하고 있다. ‘떡은 팔아도 양심은 팔지 않겠다’는 게 권씨의 경영철학.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국산 쌀과 팥, 서리태만 쓰겠다. 강화 석모에서 난 쌀로 만든 가래떡을 한 관 넉넉히 산다. 상에 함께 올릴 콩가루 편도 구입한다. “재료가 좋아 맛이 달라요. 먹어 보면 안다니까요.” 역시나 한입 베어 무니 쫄깃하고 말랑말랑한 식감이 다르다. 그 맛과 정성에 반한 주부 9단이 환히 미소를 짓는다.

삼복떡고을 867-7676, 011-414-5732, www.sambok.co.kr

차례상에 올릴 마른음식을 마트에서 사려면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하지만, 시장에 가면 건어물가게에서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다. ‘진미 건어물’의 임홍락(58)씨는 15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상께 드릴 것이라 밤, 대추, 황태포, 꽃감, 유과를 욕심내어 한가득 바구니에 담으니, “유과는 이정도만 사도 된다”며 무게를 털어낸다. 무조건 큰 단위로 물건을 담아 파는 마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정직함과 곰살맛음이 단골들의 발길을 지금껏 전통시장으로 이끌었으리라.

진미 건어물 864-8796



주부를 명절증후군에 시달리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전 부치기. ‘할매 부침’은 고맙게도 이러한 주부의 걱정을 덜어준다. 김영자(77) 할머니는 신기시장과 30여 년을 동고동락한 안방마님. 생선을 파는 것으로 시작해 훗날 전을 부치며 삼남매를 키워 온 할머니는, 지난날 고생한 건 다 잊었다며 환히 웃는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가 곁에서 할머니의 손맛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은 신기시장의 명소. 평소에도 그렇지만 명절이 오면 시장 밖까지 줄을 길게 설 정도로 손님들이 끊는다. 맛의 비결을 물으니 “맛있게 해야지. 재료는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걸로 해야 해. 그래야 맛있어” 한다. 전 서너 가지를 섞어 만원어치를 사도 푸짐, 마음까지 든든하다.

할매부침 863-1696, 야간 863-6233



장보기에 나선 지 어느덧 두 시간이 지났다. ‘뭐 잊은 것 없나.’ 그때 ‘찬수네 방앗간’에서 흘러나오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예전만 못해도 명절을 앞둔 방앗간은 여전히 바쁘다. 오전부터 기름 내리고 쌀, 콩을 빻느라 쉴 새 없이 기계가 돌아간다. 신기시장의 김종린(58) 상인회장은 시장에서 처음 과일을 팔다 아들 찬수가 한 돌을 맞은 81년 방앗간을 열었다. 지금은 부자가 사이좋게 방앗간을 지키고 있다. 이곳에서 제사음식에 쓸 질 좋은 참기름과 식혜를 만들 엿기름을 샀다. 살얼음 살짝 끼고 밥알이 동동 뜬 식혜, 생각만으로도 입안이 달달하다.

찬수네 방앗간 862-3154

기름 : 참기름 3만원 + 엿기름 2,000원  
마른음식 : 밤 5천원 + 대추 2천원 + 꽃감 7개 5천원 + 유과 4천원 + 황태포 5천원  
전 : 녹두전(국산) 3장 9천원 + 모듬전 1만원

전통시장 설 차례비용 : 총 19만6천원

역시 마트보다 시장  
전통시장이 유통업체보다 26.1% 저렴

정보 +

설맞이 제수용품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올해 차례상 관련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기준 20만8천084원, 대형유통업체 기준 29만9천897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 대비 약 30% 가량 저렴하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국 17개 지역, 37개소(전통시장 12개소, 대형유통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설 차례상 관련 26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축산물(쇠고기, 계란)과 수산물(동태, 다시마)은 작년보다 하락했다. 그러나 채소류인 배추 무와 과일류인 사과 배 값은 올랐다. 관련 자료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c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전통시장으로 장보러 오세요

설맞이하기엔 전통시장만큼 좋은 곳도 없다. 푸근한 인심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넉넉함. 예전의 좁고 복잡한 시장바닥을 생각하면 안 된다. 요즘 시장은 현대적인 시설로 깨끗하게 새 단장해 장보기도 편하다. 그래서 현명한 주부는 마트나 백화점 대신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신기시장**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은 인천에서 ‘잘 나가는 시장’으로 꼽힌다. 이곳에서는 상인과 손님이 섞여 내는 흥정소리와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신기시장의 장점은 마트로 향하던 발걸음도 돌리게 하는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상품들. 여기에 인천 전통시장 최초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정비하는 등 늘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 지금도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소비자센터 건립을 구상하고 있다. 865-5424

**중앙시장** 서구 신현동에 있는 중앙시장은 인근 재개발로 주민들이 떠났지만, 청라지구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여전히 활기차다. 다른 전통시장이 그렇듯 야채, 생선, 고기 등의 가격이 마트에 비해 30% 가량 저렴하다. 또한 매주 금요일 특별한 가격으로 상품을 파는 특판세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쿠폰행사 등의 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배송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발품을 덜며 호응을 얻고 있다. 575-5002

**송현시장**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관광형 시장. 인근 배다리 헌책방, 수도권산 달동네 박물관, 차이나타운 등과 연계

해 돌면 하루가 즐겁다. 모든 농수산물들이 그렇지만 만석부와 가까워 특히 생선의 신선도가 탁월하다.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만점. 장을 보다 지치면 북카페 ‘솔마루 사랑방’에서 쉬어갈 수 있고, 짐이 무겁다 싶으면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773-2368

**신포시장** 7, 80년대 한창 때는 사람의 물결로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잘 나갔다. 한때 구도심 사람들이 빠지면서 외면 받기도 했지만, 신포시장은 아직 건재하다. 저렴하고 질 좋은 제수용품을 두루 갖추고 있어 설날 장보기에도 좋다. 닭강정, 공갈빵, 화덕만두 등 신포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는 또 다른 즐거움. 772-5812

**모래내시장** 80년대 초 주택가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래내시장은 오랜 세월 주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농부의 건강한 땀방울이 스민 농산물과 수산물, 인심이 가득한 먹거리까지, 설맞이에 필요한 건 다 있다. 또한 아케이드 설치 등으로 현대적으로 단장해 찾는 이가 계속 늘고 있다. 471-1427

## 시장에 장보러 간다고요? 아니요, 놀러가요!

우리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테마형 전통장을 조성한다. 시는 부평역세권시장, 강화풍물시장 등 중심상권 9개 권역을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과 기업간 자매결연 확대 ▲지역대학 전통시장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프로그램 확대 ▲전통시장 투어프로그램 연계사업 추진 ▲특화상품 개발·브랜드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2개 시장, 16개 사업에 예산 총 8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차장 2개소 47억원, 아케이드 2개소 18억원, 편의시설 정비 5개소 9억원, 안전시설 정비 9개소 7억원, 태양광 설비사업 1개소 6억원 등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유통, 쿠폰 확대, 상인대학 운영,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관련, 농·수·축산·식품에 대한 매장 면적 40% 이하 구성, 전통시장 지역 상품 납품판로 제공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 마을의 부활!

## 이웃과 소통하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각박하다고만 여겨지는 대도시 생활. 마을을 부활시켜 주민들끼리 서로 돕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마을들이 생겨나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마을 주민들이 소소하게 동네 이야기도 나누고, 마을축제를 즐기며 공동체 속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살기좋은 동네, 이웃끼리 소통하는 공간이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만월산 사람들

남동구 만수3동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월산 사람들. 만월산 사람들은 공동의 공간에 사는 마을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공동체 신문인 '만월산동네신문'을 2011년 12월 창간했다. 신문을 통해 동네 소식도 알고 지역의 소소한 일, 함께 고쳐가야 할 일을 공유하며 공동체의식을 높여가자는 취지다. 마을신문을 만들기 전 15명의 마을주민들이 동네 기자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동네기자가 되어 동네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만월산동네신문은 분기로 발간하고 매호 2천부씩 8면 발행한다. 신문은 현재 5호까지 발행했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2011년 8월부터 시작했다.

삶 속에서 이뤄지는 마을공동체의 모습은 출근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나눈 이웃과의 인사에서, 장을 보면서 나눈 상인과의 소소한 이야기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주부들이 나누는 작은 수다에서 마을이 시작되고, 행복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

만월산 사람들은 작년 9월 주민들의 화합잔치인 동네축제를 열었고 주민 5백여 명이 참여했다. 마을 잔치로 주민들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느끼는 기회를 마련했다. 동네축제는 매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만월산동네신문엔 무심히 스쳐만 갔던 구두방 아저씨의 이야기, 우리동네 동장님 소개, 고질적인 동네 민원을 제기해 관련기관으로부터 개선을 약속받았다. 여기에다 아나바다운동, 우리동네 예산의 쓰임처를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짚어내 시민의 호응을 이끌었다.

만월산사람들은 마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 자원봉사 교사는 당연 동네 어머니들로 오후 4



시~6시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종이 접기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열어 아이들과 호흡한다. 마을공동체가 주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청학동마을공동체 ‘마을과 이웃’

마을은 사람간의 관계다. 사람이 모이는 곳, 정을 나누는 곳이 ‘마을’이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연수구 청학동마을공동체 ‘마을과 이웃’이다. 마을의 중심엔 아이들이 ‘느티나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보호수가 있다. 530년간 마을을 지키고 있다.

청학동마을공동체 ‘마을과 이웃’이 결성된 배경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8년 청학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됐고, 주민에게 부과된 과도한 개발부담금을 탕감하는 데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섰고, 수인선 철로 지상화 사업을 주민들이 푹푹뭉친 항의 끝에 지하로 건설하겠다는 철도청의 공식발표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마을에 큰일이 닥쳤을 때 함께 힘을 모으고 연대했던 끈끈함이 마을공동체로 이어진 것이다.



주민들은 이때부터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 지역의 자투리땅을 어려운 학생이 와서 공부하고 문화를 배우는 ‘나눔교실’을 만들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마을공동체학교가 탄생한 스토리다. 학교가 만들어진 뒤 학교에 필요한 집기들은 주민들 스스로 채웠다. 폐지와 고물을 팔아서 생활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공부방 운영에 보태라며 꼬깃꼬깃 접힌 쌈지돈을 내놓아 공동체학교 운영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청학동마을공동체 ‘마을과 이웃’은 주민들의 화합과 문화활동 차원에서 합창반과 풍물패를 운영하며 그 기량을 마을축제에서 선보이고 있다. 마을공동체학교는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와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모니카, 풍물, 한자, 학습활동을 돕는다. 마을공동체가 동네 어려운 이웃의 심리적 언덕이 되고, 주민들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공동체가 활성화 된 데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과 노력도 컸다.



마을공동체학교에서는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와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모니카, 풍물, 한자, 학습활동을 지원한다.



윤종만 위원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공동체 활동이 다져지고 커가는 발판이 됐다. 자원봉사자는 현재 25명이다.

청학동마을공동체는 매년 10월 느티나무마을 축제를 열어 마을주민의 대동단결과 훈훈한 인정을 나눈다. 동네주민들이 1천원, 2천원씩 추렴해 마련하는 마을축제에는 아이 어른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기는 날이다. 노인 잔치마당, 아이들을 위한 놀이로 세대를 아우른다. 문학산 기슭 오백년 느티나무마을엔 도심 속에서 마을공동체를 꿈꾸는 이웃들이 살고 있다.

선학, 세화, 연수복지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는 게 바빠 남을 돌볼 여력이 없는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마을공동체 활동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나섰다. 먹고 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곳을 깨끗하게 만들어 정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에 공감해서다. 연수구 내 선학, 세화, 연수복지관과 인근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협력해 펼치고 있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지역공동체 활동의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나와 아파트 동네청소, 화단가꾸기, 방범활동을 벌인다. 화단의 쓰레기 청소, 나무 가꾸기로 동네에 대한 애향심을 높인다. 밤에는 3~5명씩 조를 짜 방범활동을 벌이며 우리동네의 치안과 밤길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공동체활동은 이웃간의 정도 키우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무기력하게 살던 한 주민은 공동체활동으로 삶에 의욕을 갖고 공부를 시작해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했다.

마을공동체 활동이 주민들에게 활력과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트리고 있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기대회를 향해



## 强 스파이크!

인천의 원도심 중에서도 가장 외진곳. 송림동에 백구의 제전 이자 첨단시설이 요구되는 배구장이 들어선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배구전용구장이다. 2월 현재 공정률은 75%선. 다른 보조경기장에 비해 공사 진척이 빠른 편이다. 지붕과 건물외관이 완성됐고, 외벽 판넬공사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한창이다. 온 세상을 뽀뽀 열리는 한파 속에서도 경기장은 그 위용을 서서히 갖춰가고 있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임운석 자유사진가

### 똥공장, 생활쓰레기 매립지의 화려한 변신

똥장군이 연일 매섭게 맹위를 떨치던 지난 1월 14일 송림 배구장 건설현장을 찾았다. 이날 인천의 기온은 영하 9도. 매서운 칼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14~15도. 목도리를 둘둘말고, 장갑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어도 옷 속을 파고 드는 찬 바람은 피할 수 없었다.

배구장이 들어서는 송림6동 일대는 속칭 ‘똥공장’이 있었다. 시민들의 분노를 처리하던 장소였다. 승의동과 연희동 등에서 처리했던 인천 전역의 분노를 3만 여㎡ 규모의 이 ‘똥공장’에서 처리했다.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이곳에 설치되어 있던 정화시설을 36개나 걷어냈다. 외곽 중에서도 외곽이었기에 도심에 들어설 수 없던 혐오시설은 송림동

차지였다. 이곳은 70년대 생활쓰레기 매립현장이기도 했다. 땅을 파고 흙을 고르자 지하에 묻혀있던 사기그릇, 라면봉지 등 생활쓰레기가 무더기로 나왔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공사비 만큼 많이 들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들었다. 배구장 주변은 아직도 폐차장, 레미콘, 벽돌공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환경이 쾌적하지는 않다.

배구장은 현재 건물이 거의 다 완공된 상태다. 외관과 지붕공사가 끝나가고 의자설치, 조명달기, 페인트 칠, 천정작업, 마감재 등 내부 인테리어를 남기고 있다. 공사장 내부는 추운 날씨로 인해 썰렁했다. 요즘같이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공사가 안된다. 송림경기장의 공정률이 빠른 것은 재작년 공사가 많이 진행했기 때문이다. 재작년 겨울 토·일요일도 없이 새벽 3시까지 콘크리

트를 치는 작업을 했기에 공정률을 맞춰가고 있는 것이라고 LG건설 관계자는 전한다.

외벽 판넬 작업을 하는 인부들은 지상 3층 높이에 달하는 벽에 딱 붙어서 실선을 따라 판넬을 붙인다. 그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은 튼튼한 크레인차다. 한겨울에는 금방 어두워져 5시 이후로는 작업을 할 수 없기에 바깥공사는 낮 시간에 빨리 처리한다. 요즘 건설현장에서는 나무로 불을 지피며 인부들이 몸을 녹이는 장면을 볼 수 없다. 현장에서 불을 피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 ‘빛과 녹음’이 컨셉…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송림배구장의 기본컨셉은 ‘빛과 녹음’이다. 경기장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송림동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고, 빛을 통한 역동적인 속도감을 디자인으로 녹여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됐고 관람석은 총 5천9석으로 국제규격에 맞췄다. 고정석 3천185석, 가변석 1천824석이다. 경기장 1층은 가변무대를 설치, 경기가 없을 때는 각종행사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송림배구장은 배구경기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기둥이 없다. 건설공법의 특징은 주경기장의 경우 36m에 이르는 장스팬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내부에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서 벽체와 연결해 건물 하중을 지지하게 했고, 지하 연습장은 26m 장스팬 포스트텐션 공법을 적용했다. 송림경기장 바로 옆은 바다다. 그래서 경기장 지하 바닥은 펄로 이뤄져있다. 펄에 경기장을 짓는 형세이기에 안전성과 견고성 그리고 부력으로 경기장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바닥에 쇠파이프인 마이크로 파일 537공을 20m 간격으로 박았다. 경기장은 친환경 녹색에너지인 지열시스템을 설치, 지열로 경기장의 난방, 전등의 일부로 활용한다.

경기장의 주요시설로는 주경기장, 연습경기장, 피트니스센터, 연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주경기장은 배구경기가 없을 때는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한다. 1층에 마련된 가변무대는 행사 공연장으로 변신해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된다. 문화공연에 목마른 동구 주민들에게 문화의 향연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주경기장과 연습경기장 바닥은 캐나다산 단풍나무가 깔린다. 재질이 단단하고 탄력성이 좋아 배구경기장에 많이 사용되는 자재다.



경기장은 선수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선수들을 위한 동선으로 꾸며졌다. 외부 환경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경기장으로 진입한 후 램프를 이용해 배구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지붕의 경우 철판 알루미늄 단열판을 사용, 단열성, 누수 방지를 위한 기능을 높였다. 또 소리를 빨아들이는 흡음제를 설치한 것도 특징이다.

경기장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지하연습장은 탁구, 배드민턴, 농구장으로 변신하고,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등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변신한다. 지상1층 경기장은 생활체육시설, 공연장으로 조성되며 동구주민들을 위한 연회장,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선다.

동구 송림배구장은 오는 7월 완공된다.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송림배구장에서 47개의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다. 배구장 건설로 송림동은 인천의 외곽에서 스포츠의 중심지로 그 이력이 화려하게 바뀌고 있다.



#### 숫자로 보는 송림배구장

총동원 인력 5만5천명(26개월간) / 철근 1천 834톤 / 레미콘 1만8천214㎡  
PHC파일 9천470m / 시멘트 4만931포 / H-빔 144개 / 경기장등 116세트  
마이크로파일(펄 고정용 파일) 537공(20m 간격으로) / 실내등 2천개



### 그 밖의 경기장

#### 서구 연희동 주경기장

2014년 9월 19일 40억 아시아인의 시선이 집중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이 2014년 6월 완공된다. 주경기장의 관람석은 6만1천74석으로 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치러진다. 총 사업비는 4천900억원이다. 대회를 치른 뒤에는 주경기장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수직시설만 남기고 주변에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 7개 종목의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한다.

#### 문학경기장 - 수영

남구 문학동 515번지 일원에 세워지는 문학경기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설되며 연면적 1만8천㎡ 규모다. 실내에 경영풀, 보조풀, 다이빙풀, 지상훈련장이 들어선다. 실외에는 갤러리마당, 이벤트 마당, 물빛마당이 조성된다.

#### 십정경기장 - 테니스, 스쿼시

부평구 십정동 101-2 일원에 세워지며 면적 2만 6천723㎡로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7천77석

을 갖춘다. 십정경기장은 시민편의 차원에서 당초에 없던 수영장도 조성한다.

#### 선화경기장 -하키, 복싱

연수구 선학동 83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하키장 연면적 6천354㎡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8천115석이 조성된다. 경기장 옆에는 유도, 레슬링경기장으로 사용하는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선다. 체육관은 지하1층, 지상3층, 2천104석 규모다.

#### 계양경기장- 배드민턴, 양궁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건설되는 계양경기장은 배드민턴, 양궁경기가 치러진다. 서를곡을 뒤희는 라켓의 긴장감을 표현하는 배드민턴 경기장은 지하 2층, 지상 3층에 4천304석을 갖춘다. 양궁경기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1천181석 규모다.

#### 남동경기장 -체조, 럭비

수산동 409번지 일원에 건설되는 남동경기장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체조와 럭비경기

장으로 쓰인다. 리본체조의 여성적이고 연속적인 곡선의 이미지를 모티브한 체조경기장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8천874석이다. 럭비경기장은 남성의 팔 근육의 입체적인 형태를 콘셉트로 역동적인 럭비공을 형상화했다. 지상 3층에 5천38석 규모다.

#### 강화경기장- 태권도, 복싱, BMX

강화경기장은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46-2 일대에 사업비 671억7천6백만원을 투입, 1만8천704㎡규모로 태권도와 우수, BMX경기장이 신축된다. 태권도 우수 경기장은 지하 2층, 지상 3층, 1만6천200㎡, 관람석 4천14석이다. 사이클 실외경기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1천10석규모다.

#### 옥련사격장(실내)

연수구 옥련동 일대에 세워지는 옥련사격장은 지상4층 규모에 1천337석을 갖춘다. 이곳에서는 실내 사격경기가 치러지고 건설 사업비는 3백50억원이다.





꼭! ‘할 수 있다’는

희망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우리시와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한 공공재활의료기관. 저렴한 비용으로 최첨단 재활시설을 제공해,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이 운동하고 열심히 치료하면 ‘극복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열어 주고 있다. 그리고 올해 ‘소아재활치료센터’라는 더 큰 희망의 열매를 맺는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 믿음 주는 공공의료기관

‘내가 만약 걸을 수 없다면, 손을 쓸 수 없다면...’ 누구나 ‘장애’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아도 누구나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치료를 잘 하면 말할 수 있고, 더 많이 운동하면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국가정책 사업으로 전국 6개 권역에 건립하고 있는 권역별 재활전문병원 가운데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 연수동 인천직접자병원 내 지상 5층 총 건축면적 1만6천644㎡에 150병상 규모로, 우리시와 보건복지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운영을 맡고 있다. 이곳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뇌혈관질환 등 갑자기 찾아 온 불행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환자의 치료를 돕는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의 임윤명 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사명감을 안고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다. 재활전문이가 이끄는 재활전문팀과 최첨단 재활치료 시설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가 높다”며 활짝 웃는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최첨단 장비로 희망 가까이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최첨단 시설을 갖추었다. 병원 내 수중재활치료실. 뇌졸중으로 몸의 일부가 마비된 김인수 할아버지가 풀(Pool)에 들어가 치료를 받고 있다. 물리치료사의 섬세한 이끌림에 굳었던 몸이 편안하게 풀린다. 환자의 치료를 맡고 있는 류창열(34) 물리치료사는 “물 속에서는 부력을 이용해 보조기구 없이도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시면서 힘이 많이 좋아지셨다”며 수중재활치료가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자로 운영되는 탓에 수중재활치료시설을 갖춘 곳은 전국적으로 대학병원급 10여 곳뿐으로, 그 중에도 이곳은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

바로 옆 보행분석실에서는 안전장치를 착용한 환자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몸을 움직이고 있다. 화면 속 토끼가 뛰어 있는 과일 주워 바구니에 담는 동작을 반복하며 마비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밸런스 트레이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올해도 재활로봇을 도입해 새로운 의료 분야에 도전한다. 병원 측은 환자의 보행치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과학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렴한 치료비로 환자 가까이

장애를 지니고 있어도 그나마 경제력이 있으면 치료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장애인 환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경인의료재활센터는 최첨단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환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이곳은 일반병원과 보험 수가가 동일하지만 비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항목에서는 의료비가 50~70% 가량 저렴하다. 특히 일반병원에서 비보험 수가로 청구하는 슬링장비를 30여 대 보유해 환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원비가 1인실 3만원, 2인실 2만원, 4인실 8천원으로 일반병원에 비해 상급병실 차액이 월등히 저렴하다. 때문에 환자들은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 사용하는 가격이 비싸 엄두도 내지 못했던 첨단 의료기구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일까 이곳에서 만난 환자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다.

**경인의료재활센터**는 정부가 전국 6개 권역에 건립 중인 권역별 재활전문병원 중 2010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경인 권역 재활병원. 경기와 인천을 중심으로 재활진료, 교육, 연구, 지역사회 중심 재활 등이 이뤄진다.

**재활치료**는 수증재활치료, 스포츠재활치료, 외래·입원 통합 운동치료, 성인작업치료, 온열통증치료, 언어치료, 인지 재활치료, 소아재활·작업치료 등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장애인 및 후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환자, 뇌혈관질환 수술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사고로 인해 신체의 움직임이 현격히 저하돼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언어 및 인지재활과 물리치료 등이 필요한 성인 및 소아환자 등이다.

**의료비**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어려운 환자도 수준 높은 의료진의 치료와 정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비는 일반병원과 보험 수가가 동일하지만 비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항목에서는 최대 50~70% 저렴하다. 또한 사회사업실을 운영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환자의 상담을 진행하고 무료진료 지원을 연계해 준다.

문의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899-4000  
www.rch.or.kr/gyeong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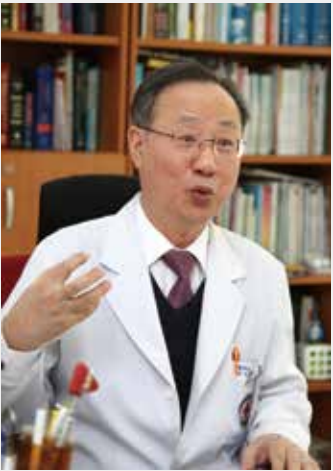
열심히 치료하면 ‘할 수 있어요’

오는 7월이면 병원 내에 ‘소아재활치료센터’라는 소중한 열매가 맺힌다. 센터에는 소아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치료, 감각통합치료, 심리안정치료, 언어치료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조기에 치료받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어린 장애아들이 이곳에서 새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조대형(47) 재활치료실장은 “소아환자의 경우 한 명 한 명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지원해야 제대로 된 재활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치료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치료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게 현실이다”라며 소아재활치료센터가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병원은 이와 함께 향후 국립재활원, 적십자병원, 관내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된 재활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더 많이 운동하고 열심히 치료하면 자유로울 수 있다는 희망.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꿈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mini interview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장 임윤명

“가족처럼 지켜드리겠습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임윤명 원장은 재활의학전문의로 40여 년을 보내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던 환자가 치료를 받고 개선되었을 때가 가장 기쁘고 보람되다. 그리고 재활을 위해서는 훌륭한 치료시설과 성심을 다하는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잘 쓰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던 환자분이 계셨는데, 협착증까지와 손까지 불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의지가 강하셨고, 결국 지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치료시설과 재활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대하고 있다. 올해도 병원에 소아재활치료센터가 세워지고 로봇치료기가 도입돼 치료 시스템이 더욱 강화된다.

임 원장은 이 같은 의료 혜택을 더욱 많은 사람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인의료재활센터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 저렴한 의료비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가족처럼 지켜드리겠습니다.”





무뚝뚝한 맛  
겨울철 별미 음식

## 춘천 막국수

유난히 추운 금년 한겨울날에 굳이 썰렁하고, 으스스 한기가 돌는 막국수와 그 막국수집 이야기를 쓰는 소이는 여름날 이열치열 운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겨울철에는 이냉치냉의 상미(上味)가 이 춘천막국수에 있기 때문이다.

글 김윤식 시인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뛰니 뛰니 해도 겨울밤 별미는 단연 삶은 돼지고기 편육과 함께 먹는 메밀국수 맛일 것이다. 오늘날은 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밀국수, 곧 냉면(넓은 의미에서는 막국수도 포함된다.)을 여름철 음식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겨울철 음식이었다. 고 신태범 박사의 저서 <먹는 재미 사는 재미>에도 “냉면은 그때도 겨울 음식인 평양 냉면을 표방하고 있었으나, 국수와 겉들이가 비슷할 뿐 국물은 동치미가 아니라 육수였다. 특히 당시로서는 귀물이던 얼음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이 신기했고, 사철음식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거두절미, 짧게 인용했기 때문에 독자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시겠지만, 신 박사의 글 속에서 “그때도”라고 지칭된 1910년대서부터 193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까지 평양식 ‘메밀국수’ 혹은 ‘국수’가 인천 땅에서 인천식 ‘냉면’으로 진화한 상황을 읽을 수가 있다. 주요 진화 내용은 우선 동치미에서 육수로 바뀐 냉면 ‘국물’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게 된 ‘시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냉면의 육수나 먹는 시기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항도 인천 땅에는 어획물 보존을 위한 제빙공장의 얼음이 많았다는 것, 또 인천에 입항하는 외항선이나 일인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문을 연 도살장과 거기에서 나오는 소뼈, 내장 등의 부산물이 흔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냉면의 수요가 사철 끊이지 않았다는 점 등일 것이다. 이렇게 인천 땅에서 여름철에도 메밀국수를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아마 찬 국수를 뜻하는 ‘냉면’이라는 이름이 처음 생겨나 불리기 시작한 게 아닐가도 싶다.



사족, 결국 이 ‘인천 냉면’은 “1932년 인천미두취인소가 폐쇄되고 전시 경제에 따르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고 말지만, 그 20년 남짓한 동안에 소문과 함께 각지로 전파되다가 광복과 6·25를 겪으면서 전국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름철 음식으로 생각하는 오늘날의 냉면의 원조는 이렇게 인천에서 진화했으니 인천이 냉면 식문화에 일대 혁명을 일으킨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인 바뀌었어도 맛, 재료 변함없어

송의동 춘천막국수집 이야기는 제쳐두고 이렇게 서두에 길게 냉면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막국수 역시 원료인 메밀의 수확기 등을 볼 때, 겨울 음식일 수밖에 없고 특히 겨울밤 밤참으로 최고의 별미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였다. 그러니까 유난히 추운 금년 한겨울날에 굳이 썰렁하고, 으스스 한기가 돌는 막국수와 그 막국수집 이야기를 쓰는 소이는 여름날 이열치열 운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겨울철에는 이냉치냉의 상미(上味)가 이 춘천막국수에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먹는 재미 사는 재미>는 1989년 뛰어난 미식가로 유명했던 신 박사께서 해박하고 맛깔스럽게 여러 음식과 각종 식미에 관한 내용들을 집필, 출판한 책인데 인천의 향토 음식을 설명하는 편에 이곳 ‘춘천막국수’집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송의동의 춘천막국수집의 강원도식 막국수와 삼겹살 편육은 강원도 토박이가 인정할 만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다소 짧은 편이지만 이 집의 특장만을 드러내 보여주는 박사님 식의 아주 간결, 강조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춘천막국수집은 애초 지금 건물 건너편 주차장 자리에 있었고 창업주도 황해도 대북면 출신





뭐니 뭐니 해도 겨울밤 별미는 단연 삶은 돼지고기 편육과 함께 먹는 메밀국수 맛일 것이다. 오늘날은 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밀국수, 곧 냉면(넓은 의미에서는 막국수도 포함된다.)을 여름철 음식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겨울철 음식이었다.



이근호씨라는 분이였다. 남하해 춘천에 자리 잡은 이분 모친이 춘천 시장에서 처음 국수집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인천으로와 몇 군데를 거쳐 지금의 주차장 자리에서 춘천막국수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성업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신 박사께서 글을 쓰신 때는 바로 이분이 장사를 할 때였다. 그 후 현재 주인 김재현씨 부부가 11년 전에 그 대를 이은 것인데, 김 사장은 이근호씨 바로 옆집에서 15년 넘게 불고기집을 운영한 경력의 소유자다.

양심적이고 온화, 성실한 성품의 김재현씨 부부는 인수 후에 예전의 맛이나 내용물 함량에 있어 눈곱만치의 차이도 없도록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여전한 여기 단골들에 의해 증명되는 사실이니 비록 주인은 바뀌었다 해도, 신 박사께서 앞서 선사한 상찬(賞讚)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이냉치냉’ 겨울밤 별식

처음 황해도 사람에 의해 탄생한 이 집은 이제 30년 넘는 전통의 인천 원조 춘천막국수집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근호씨의 쌍둥이 형제가 열었던 또 다른 막국수집이 원조라는 설’도 있기는 하다.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80년대 초 무렵 중구 신생동 소재 중구집 신성루에 나란하게 붙어 문을 열었다가 폐업 후 다시 중구 사동 영진주유소 뒤편 주택가에서 한동안 재기를 노리기도 했었다.

다시 국수 이야기로 돌아가자. 근래 인천의 전통 냉면집들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웅진냉면이니 백령냉면이니 하는 집들이 메우고 있으나 맛은 다르다. 이들 냉면들은 대체로 전분(澱粉)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쫄깃한 맛을 내는데 비해 춘천막국수는 그렇지 않다. 좀 무뎡뎡하다고 할까. 이빨 사이에서 그저 뚫뚫 끊어지고 마는 것이다. 어찌면 이런 군더더기 없는 담백하고 개운한 맛이 입에 더 어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면의 빛깔조차도 다른 냉면에 비해 검게 보이는 까닭에 젊은 층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듯하다.

막국수 육수는 고기국물을 내어 하얗게 만들지만 컵에 따라 주는 물은 메밀을 삶은 진한 흑갈색이다. 이것이 당뇨나 혈압 같은 성인병에 좋아서, 또 숙취를 깨게 하고 간을 튼튼히 한다고 해서, 아침마다 마시러 오는 손님도 있다고 한다. 막국수가 나오기 전에 이 물에 간장을 한 방울쯤 떨어뜨리고 겨자도 슬쩍 풀어서 마시면 매우 독특한 음료가 된다. 이런 겨울에는 ‘다소 으슬한 기분으로’ 막국수를 먹은 뒤, 이 물을 천천히, 두어 잔 정도 더 청해 마시는 것이다.



이내 온몸이 파스해지고 포만한 기분이 든다. 강원도 토박이만이 아니라 황해도 토박이, 그리고 인천 토박이도 썩 만족할 식미인 것이다.

“접시 귀에 소기름이나 소뿔 등잔에 아즈카리 기름을 켜는 마을에서는 겨울밤 개 짖는 소리가 반가웁다//〈중략〉//낮배 어니메 치코에 꿩이라고 걸려서 산너머 국수집에 국수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도 개는 짖는다//김치 가재미선 동치미가 유별히 맛나게 익는 밤//아배가 밤참 국수를 받으러 가면 나는 큰마니의 돌보기를 쓰고 앓아 개 짖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서북인 백석의 시 「개」의 전문이다. 겨울 밤참 국수(메밀국수)를 호식하던 모습과 함께 당시 서북지방 풍정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냉치냉, 막국수도 이렇게 겨울에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평소 식미, 식감 탐험의 기호를 가진 분들에게 이 겨울날 여기 막국수 시식을 권해 보는 것이다. 워낙 겨울 국수가 자신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소머리국밥이나 만둣국 같은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남구 송의동 164-13, 이 집 위치는 송의동 로터리 하나는 행 뒤편 주택가, 또는 현대 유비스 병원 맞은편 골목, 아니면 한국건강관리원 뒷골목이라고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



## 그의 일기장에서 인천의 내일을 보다

일기는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담긴 창. 그 앞에선 모든 걸 드러내고 가장 솔직해진다. 송영길 시장이 손수 써내려간 일기장에는 시민과의 진심어린 소통과 인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또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의 비전을 품고 부지런히 걸어 온 지난날과 '연비어약(鰲飛魚躍)' 더 높이 도약할 내일이 담겨 있다. 지나 온 그의 일기장을 꺼내 보며, 한히 빛날 인천의 내일을 그려본다.

정리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 시정일기를 시작하며

지난 의정활동 10년 동안 의정일기를 작성해왔다. 국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이제 인천시장으로서 시정일기를 작성해보려고 한다. 인천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위한 점도 있다.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상호소통을 위해서다. 오늘 아침도 지하철로 출근하면서 여러 시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2010. 07. 20. 일기 중에서

### 환경미화원들과 부대끼며 보낸 시간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창립기념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10개 구군 환경미화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환경미화원들의 소박한 요구 중 하나가 체육대회 때 꼭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시장이 체육대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약속을 하였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민상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에 대신 참석하기로 하고, 2시간 동안 머물면서 함께

줄넘기하고 막걸리도 먹었다. 최선을 다해 함께 부대끼며 격의 없는 시간을 보냈다. 모두들 밝은 모습을 보니 기분 이 좋다. 2011. 10. 07. 일기 중에서

### 삼성유치, 1%의 가능성을 현실로

2010년 시장 취임 이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상징적인 국내 대기업 '삼성'을 유치해야겠다고 생각해왔다. 마침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삼성이 신 수종사업 중 하나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당시 삼성은 수원 삼성전자 땅에 삼성바이오 공장을 지으려고 설계도까지 완성해 놓은 상태였다. 김태환 사장의 표현에 따르면 내가 2010년 9월경 처음 제안할 당시 만해도 10% 이하 1% 정도의 가능성 밖에 없는 상태에서, 인천이 새로운 제안을 했고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중략) 결국 미국 쿼타일즈와 합작법인을 통해 외투기업인정을 받아 송도에 투자하게 됐다. 기적적인 일이다.

2012. 1. 25. 일기 중에서

### 팽이부리마을, 원주민 100% 재정착할 것

만석동 팽이부리마을 임대주택 건설 착공식이 있었다. 팽이부리 마을을 2년 전 돌아보고 푸세식 공동화장실을 비롯해 100여 년 동안 변하지 않고 방치된 이 마을을 새롭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이래 2011년 6월 도시주거지 재생계획안을 수립하고 국고지원 등을 확보, 드디어 사업을 시작했다. (중략) 이번 팽이부리마을은 서민형 임대주택 등을 건설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20% 남짓에 불과한 기존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거의 100%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2012. 09. 26. 일기 중에서

### GCF, 유치 세계 향한 새로운 도전

아침에 회의장 앞에 서서 회의장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였다. 각 대표들이 반가운 표정으로 행운을 빌었다. GCF 임시 사무총장은 나에게 시장이 너무 적극적으로 뛰다면서 다음 자기나라 선거할 때 고문으로 초빙해야겠다는 농담도 한다.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다. (중략) 드디어 발표가 났다. 모두 껴안고 함성을 질렀다. 박재완 장관과 기자회견장으로 갔다. 기쁜 일이다. 인천과 대한민국의 경사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제기구가 들어왔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처음으로 국제기구다운 기구가 들어온 것이다. 2012. 10. 20. 일기 중에서

### AG 주경기장 건설, 긴 싸움 끝 성과

2012년 마지막 날이다. OBS 생방송 인터뷰를 마치고 국회로 향했다. 어젯밤 내내 예산결산 소위원회와 간사회의에서 씨름을 했다. 예산소위도 가동을 마쳤고 최후의 답판으로 여야간사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3자간의 마지막 담판이었다. 마지막까지 기재부에서 서구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의 문제를 가지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를 말릴 정도의 밀고 당기는 싸움이 계속되었다. (중략) 결국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615억이 일단 정리

되었다. 일단 기초공사 설계조사비 명목으로 10억을 확보하였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2012. 12. 31. 일기 중에서

### 연비어약, 새로운 출발

연비어약(鰲飛魚躍), 새해 아침이 밝았다. (중략) 나는 몸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표정을 밝게하고 항상 웃으려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얼굴이란 일이 들어가고 나가는 굴이다. 얼굴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한다. (중략) 새로운 일 새 일이 잡혀야 한다. 밝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3. 01. 01. 일기 중에서

### 전국 2위 외자유치 성과, 원도심으로 연결

지경부 발표에 의하면 인천시가 지난해 외자유치 분야에 전국 2위를 했다. 총 31억 8천200만 달러로 2011년 6억 3천900만 달러 대비 398%증가했다. 비수도권 투자유치액의 88.6%에 해당한다. 최대실적이다. (중략)우리가 투자유치에 집중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 올해는 더욱 발전해 갈 것이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에 집중되어 있는 투자유치 성과를 원도심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이다.

2013. 1. 4. 일기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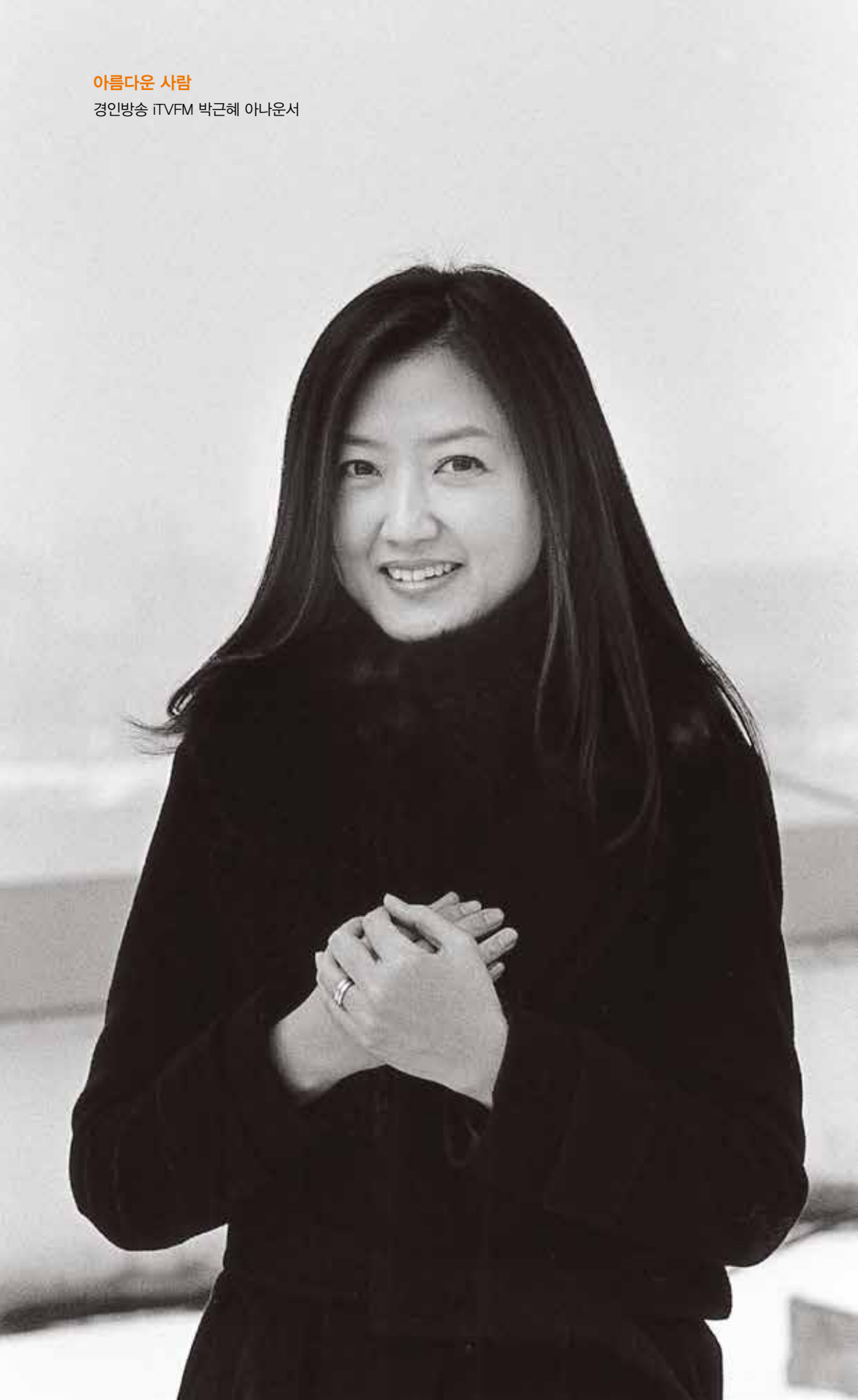
### 시민들과 맥주 한잔에 진솔한 대화

저녁에 청라에서 주민대표들과 간담회가 있었다. 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쓰레기 매립지 연장, 송도 한옥마을 건립, 청라문화센터 건립, 검암역까지 셔틀버스 및 공사구간 정리, 버스정류장 박스설치, 학교 문제 등 많은 사안들을 허심탄회하게 상의하는 시간이었다. 많은 오해가 풀리고 상황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주민들과 맥주 한잔 하면서 여러 공감대를 나누었다.

2013. 01. 21. 일기 중에서

※송영길 시장의 시정일기는 [www.incheon.go.kr](http://www.incheon.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저 박근혜예요, 제 짐무실은 스튜디오입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라디오방송 음악 DJ? 2월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름이 같아 화제가 되고 있는 경인방송 박근혜(朴槿惠) 아나운서는 본인에게 집중되는 시선과 관심이 조금은 당황스럽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덕분에 새해 벽두부터 10년 만에 <굿모닝인천>, <연합뉴스>와 인터뷰로 이름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다. 이름이 지어진 사연도 재미있다. 결혼 5년 만에 귀한 딸을 낳은 부모님이 작명가 5명으로부터 이름을 받아 고민고민 끝에 선택한 이름이 박근혜다. 아버지도 공직에 있었기에 ‘근혜’라는 이름이 공직에 나가거나 사회에 큰 기여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선택했다.

박 아나운서는 박 당선인과 실제 만난 인연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01년 경인방송이 주관한 TV토론을 앞두고 분장실에서 분장을 받았고, 박 아나운서도 자신의 방송을 앞두고 옆자리에서 분장을 받았다. 한 분장실에 2명의 박근혜가 앉아있었던 것. 주변의 스태프들이 재미로 소곤거리며 박 아나운서에게 “이름도 같은데 인사라도 해라”라고 속삭였다.

바로 그때 박 아나운서가 출연할 프로그램의 FD가 문을 열고 들어와 “박근혜씨 준비 다 됐어요?”라고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였던 박 당선인이 있을 줄 모르고 박 아나운서에게 묻는 말이었다. 박 당선인은 자기를 부르는가 싶어 고개를 돌려 FD를 봤다. FD는 박 당선인을 보고 당황스런 모습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박 아나운서 준비 다 됐어요?”라고 다시 말했다. 박 당선인은 같은 이름의 아나운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박씨에게 “이름이 박근혜인가요? 반갑습니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박근혜 아나운서는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다. KBS 슈퍼탤런트 공채 1기로 박상아, 송윤아, 차태현이 그녀와 동기다. KBS기상캐스터를 지냈고 1999년 iTV 개국과 동시에 원년멤버로 입사했다. 경인방송이 2005년 송출을 중단할 때까지 그녀는 iTV의 메인 아나운서였다.

박 아나운서는 2012년부터 경인방송 iTVM에서 ‘박근혜의 뮤직박스’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주 청취자들은 30~40대 주부, 운전자다. 바쁜 아침을 마치고 한숨을 돌린 이들에게 신청곡, 사연을 읽고 마음을 푸근히 적혀주는 노래를 들려준다. 박 아나운서는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과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려 노력한다. 워킹맘들의 고충이 담긴 사연을 읽을때면 정말 자신의 일처럼 가슴이 아프다. 자신도 세 살배기 아들을 둔 워킹맘이기에 더 애잔하다. 그래서 방송이 끝난후 ‘힘내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박 아나운서는 청취자들과 따뜻한 마음, 속깊은 정으로 만나고 있다.

박 아나운서는 새정부에 이런 기대를 건다. 워킹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많이 펼쳐주고 저출산 시대에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국가가 도와주고 길을 열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 BAND DAY

밴드 데이  
세상의 모든밴드

매력적인 밴드들의 음악을 소공연장에서 가깝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밴드 데이〉는 2013년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이 새롭게 시작하는 브랜드 공연이다.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를 구축한 밴드들의 음악을 때론 신나게, 때론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밴드 데이〉는 홀수 달 둘째 목요일 밤에 펼쳐진다.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며 권위와 질서보다는 자유로움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공연 문화를 즐겨보자.

글 김윤경 시 인터넷신문 I-View 편집위원



홍대가 아니라 인천이다!

## 밴드공연을 즐기는 ‘BAND DAY’

젊은이들의 환호성과 귀를 울리는 뮤지션들의 현란한 음악... 인디 뮤지션들이 클럽에서 벗어나 공연계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밴드가 이전의 좁고 어둡던 클럽이나 소규모 공연장에서 나와 밝고 큰 무대로 나서고 있다. 개성있는 인디밴드들의 모습을 이젠 홍대가 아닌, 인천에서 즐긴다. 겨울이 채 끝나기 전, 인천에서는 ‘밴드의 봄’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장미여관



**밴드 데이 I. 홍대 레알 비주얼 밴드 〈장미여관〉 3월 14일**

2011년 결성해 짧은 시간동안 독특한 음악과 외모 그리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두터운 마니아 팬층을 형성하며 주목 받고 있는 장미여관. 2012년 방송된 탐밴드 시즌2 방송 이후 공연은 물론이고 각종 CF, TV 라디오 고정 패널 등 다양한 곳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밴드 데이 II. 관록의 표현력과 신인의 상상력 〈3호선 버터플라이〉 5월 16일**

올해로 밴드나이 열다섯 살. 3호선버터플라이(3rd Line Butterfly)는 한국의 인디밴드사를 관통해 온 산 증인이다. 보컬 남상아의 폭발적인 매력과 기타리스트 성기완의 속 깊은 음악적 추구, 베이스스트 김남윤의 기술적인 탄탄함과 실험적인 이펙팅, 드럼 서현정의 순수한 비트가 어우러져 한국 록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음악적, 세대적 폭을 지니고 있다. 느슨하지만 방향을 잃지 않은 그들은 한마디로 ‘새롭고도 여전하다’.



Kingston Rudieska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밴드 데이 III. 흥겨움과 위로를 전하는 악동 스카밴드**

〈킹스틴루디스카〉 7월 11일

킹스틴 루디스카(Kingston Rudieska)는 대한민국의 9인조 스카밴드다. 밴드명은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톤(Kingston)과 자메이카어로 악동을 의미하는 루디(Rudie), 그리고 음악의 장르 중 하나인 스카(ska)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만들었다. 아득히 먼 자메이카의 리듬과 멜로디를 한국적인 감성으로 풀어내는 그들의 음악은 꾸밈없이 흥겨우면서도 어쩔지 애잔하다. 정갈한 리듬, 눈물 머금은 멜로디, 알싸한 혼색선이 꿈과 희망을 노래한다.

**밴드 데이 IV. 뉴웨이브록의 새로운 물결, 미친 감성**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9월 12일

기타를 맡고 있는 조브라웅과 베이스의 임꼭병학으로 구성된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는 절로 흥이 나는 장단과 미친 에너지로 팬들을 황홀경으로 이끈다. 오래된 남자와 여자가 스텔라를 탄다는 뜻을 지닌 재미있는 이름을 지닌 이들은 블록 맞추기식 게임처럼 서로를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시도를 하며 춤을 출 수도 있고, 술 한잔을 기울일 수도 있을 음악을 들려준다. 이해도 필요 없고 오해도 의미 없어 그저 자기 멋대로 이해하면 그만인 그런 음악, 그래서 더욱 사랑스러운 그들이다.

**밴드 데이 V. 가장 뜨거운 에너지! 우주에서 온 마성의 로큰롤 밴드**

〈갤럭시 익스프레스〉 11월 14일

지구상에서 가장 박력 있고 통쾌하고 단단한 밴드 갤럭시 익스프레스! 2006년 서울에서 결성, 폭발적이고 강력한 라이브 무대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2008년 첫 정규앨범 ‘Noise on Fire’를 발표, 2009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앨범상을 수상했다.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일본 섬머소닉 페스티벌 등 국내외 다수의 무대에서 공연했으며, 2011년부터 북미 투어를 시작, SXSW(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에 참여해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SXSW 하이라이트 10개 팀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며 화제를 모은 제대로 미친 멋쟁이 밴드다.

- 일정 홀수 달 둘째 목요일 오후 7시 30분  
3월14일 / 5월16일 / 7월11일 / 9월12일 / 11월14일
-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전석 2만원
- 문의 공연기획팀 ☎ 420-2736
- TIP 예술회관 걸쳐리더 유료 회원은 30%,  
중·고등·대학교 학생은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인천&아츠 공연

### 듀오 케미(Duo KeMi) 내한연주회 〈Love Concert〉



듀오 케미는 스웨덴의 떠오르는 뮤지션으로 독일, 네덜란드, 체코 등 유럽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그들만의 음악을 구축하고 있는 실력파 바이올린&기타 듀오다. 바이올린의 다니엘 미그달(Daniel Migdal)과 기타의 야곱 켈러만(Jacob Kellerman)으로 구성된 이들은 바흐, 슈베르트와 파가니니 외에도 탱고를 재해석한 피아졸라 등을 연주하며, 전통적 개념을 넘어 색다른 경지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연주에서 듀오 케미는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와 사라사테의 '찌고이네르바이젠', 파가니니의 '기타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6번' 등 대단히 어려운 기교와 세련된 애상과 정열을 요구하는 곡들을 연주한다.

일시 : 2월 28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2만원

문의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9

## 뮤지컬 〈맘마미아〉

2013년 2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 뮤지컬 맘마미아! 세련되고 간결한 최신무대와 유머 넘치고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재치있고 쉽게 개사된 ABBA의 히트곡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중·장년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 모았던 '맘마미아'가 인천관객을 찾아온다. 공연의 커튼콜은 전 관객의 기립으로 시작될 만큼 무대 위 배우들의 열정적이며 화려한 모습에 관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 '맘마미아'는 2005년 대구에서 한국 지방공연 역사상 최초, 최장기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른 후 2010년 5월부터 1년간 대한민국 23개 도시를 투어하며 200회 넘게 공연했고 매 공연마다 전국 공연장의 객석은 가득찼다. 겨울 끝자락에서 뜨거운 무대의 열정을 맛보고 싶다면 놓치지 않고 챙겨봐야 할 공연이다.

일시 : 2월 15일(금) 오후 8시, 16일(토) 오후 3시, 7시 30분

17일(일) 오후 2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문의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9



## 부모의 말이 바뀌면 자녀의 인생이 바뀐다

경인방송 원기범 아나운서 지음

소통이 화두(話頭)다. 우리는 말(언어)이 넘쳐 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말의 홍수 시대에 살지만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말, 할 말이 없으며 입과 귀를 닫아 버리곤 서로 답답해한다. 답답한 걸로 끝나면 그나마 낫다. 소통한답시고 할 말 못할 말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저자 원기범은 말로 먹고 사는 아나운서다. 대학 졸업 후 19년간 극동방송과 경인방송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말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 그는 서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 한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귀히 여김을 받고 어떤 이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미지를 망치고 손해 보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특히 부모의 올바른 언어생활과 관심을 담은 소통으로 자녀의 삶이 바뀌는 것을 많이 봤다. 부모의 말본새 보면 자녀의 미래가 보인다.

책 제목처럼 부모의 말은 자녀의 인생을 바꿔 놓는다. 자녀가 바뀌면 부모의 노후도 바뀌지 않을까. 결국 선한 말은 내 뼈에 양약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저자가 그간 방송국, 스피치 세미나, 교회, CEO 특강 등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새해 인사가 바뀐다. '해피 뉴이어 (Happy New ear)'



## CALENDAR

# 02

## PERFORMANCE

SUN	MON	TUE	WEN	THU	FRI	SAT
					인천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예뵤아, 용궁 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032)420-2790	인천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예뵤아, 용궁 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032)420-2790
3 인천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예뵤아, 용궁 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2천원 ☎인천시립극단 032)420-2790		5 '사물소리'와 함께하는 (계사년의 첫 울림)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천원 / ☎032)505-5995	6 뮤지컬 '미녀와 야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30분 / 전석 1만5천 ☎극단옥동 02-2654-6854	7	8 연극 '눈은 부부 이야기'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3시, 7시 / 3만 5천원 ☎032)500-2000 (2012 플랫폼 아티스트-쇼케이스) 차세대 연희 '영인관'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6시 / 무료 / ☎032)760-1005	9
10 	11	12	13 해설이 있는 세계음악콘서트 오후 7시 / 부평문화사랑방 3천원 / ☎032)507-5996	14 (2012 플랫폼 아티스트) 지역연계 프로젝트 이시하라 노리코의 '두부가 왔어요' 신포시장 내 꿈꾸는 은하수 오후 2시 / 무료 / ☎032)760-1003	15 뮤지컬 <맘마미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주)하늘이엔티 032-322-2121	16 뮤지컬 <맘마미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30분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주)하늘이엔티 032-322-2121 인음청소년오케스트라의 String Festival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 초대 ☎인음청소년오케스트라 032-888-8770 (2012 플랫폼 아티스트-쇼케이스) 인형 세자매-홍예문 로망스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오후 2시 / 무료 / ☎032)760-1005 Show Comedy Acappella 'DIA의 소콜라' 인천학성고등학교문화회관 씨리채를 오후 4시 / 무료 ☎032)760-3457
17 뮤지컬 <맘마미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주)하늘이엔티 032-322-2121 화인청소년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초대 ☎화인청소년오케스트라 010-2378-2619	18 	19	20	21	22 인천시민이 함께하는 디지털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 초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032-250-2101	23 최현우 매직콘서트 설록홀즈2-설록홀즈의 귀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옴름기획 1566-6551 인천시민이 함께하는 디지털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 초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032-250-2101 Newly Started - 새로운 시작 인천학성고등학교문화회관 씨리채를 오후 6시 ☎케이/웹오케스트라 010-8644-9371
24 최현우 매직콘서트 설록홀즈2-설록홀즈의 귀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옴름기획 1566-6551 인천시민이 함께하는 디지털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 초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032-250-2101	25 뮤지컬 <맘마미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주)하늘이엔티 032-322-2121 화인청소년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초대 ☎화인청소년오케스트라 010-2378-2619	26 페스티벌물루트양성분 제16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 / 초대 ☎페스티벌물루트양성분 032-888-0808 제5회 통학(南), 열린무대 남동문화예술회관 스투디오 제비 오후 8시 / 무료 ☎032)432-5712	27	28 듀오 케미(Duo KeMi) 내한연주회 (Love Concert)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전석 2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 Exhibition

## 이달의展

2월 01일~2월 18일

천재화가의 영감으로 감성두뇌를 자극하는 명화체험전 '와글와글 미술관' 인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2월 01일~2월 07일

최경아, 최선아 개인전(화예조형)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2월 15일~2월 21일

2013 경인인물화 작가회 정기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2월 23일~2월 27일

제13회 대한민국제물포 서예문인화 서가대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뜨개질은

## 엄마의 명상 시간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인천시청 앨범 발췌



6,70년대 뜨개질은 의(衣)식주 해결의 하나였다. 의류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 겨울옷은 대부분 엄마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아이들이 크면 다시 풀어서 몸에 맞춰 뜨개질을 해야 했다. 형이 입던 옷을 막내 여동생용으로 다시 고쳐 뜨기도 했다. 어디 옷뿐인가. 장갑, 모자, 심지어 가방까지 ‘엄마표’ 털실 제품이 만들어졌다. 화평철교 쪽 중앙시장 어귀에는 ‘○○모사’라는 간판이 붙은 털실가게가 줄지어 있었다. 인천시 차원에서 ‘동네 대표’ 주부들을 모아 뜨개질 강습을 열기도 했다.

“마지막에서 두번째 코는 안뜨기 방식으로 바늘만 빼고, 마지막 코는 원래 하던 걸뜨기로 마무리하세요” 마치 ‘암호’ 같은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모두들 귀를 쫑긋 세워 집중했다. ‘신기술’을 익힌 아줌마들은 마을로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이웃들에게 전수하기도 했다. 당시 신문에는 뜨개질 강습 기사가 연재돼 인기를 끌기도 했다.

엄마가 그렇게 뜨개질에 열중한 것은 꼭 자식 옷 때문만은 아니었을 게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자체가 ‘명상’이었다.

“눈 찢린다. 좀 떨어져 있거라.” 그 시간만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기에 자식조차 옆에 두기를 꺼려했는지

도 모른다. 마음 속 깊게 자리 잡은 화(火)를 손끝 놀림으로 삭혔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온 식구들이 잠든 늦은 밤에 혼자 뜨개질을 하신 것이다. 멍한 눈빛에 무의식적으로 손을 설새 없이 움직였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른다.

요즘 엄마들도 여전히 뜨개질을 한다. 입힐 대상이 예전과 달라졌을 뿐이다. 자식이 아니라 북한이나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털실을 짠다.

우량아 선발대회는 생후 6개월부터 24개월 미만의 아기들이 참가하는 대회다.

당시 우량아의 기준은 질병이 없어야 하고, 각종 예방접종을 빠뜨리지 않고 맞아야 하며 무엇보다 체중과 가슴둘레 등 신체발달과 영양상태가 좋아야 했다. 대부분 키 크고 살집 좋은 아이들이 우량아로 뽑혔다.

사진은 1965년 인천의 우량아들이다. 요즘 시각에서 보면 약간 걱정되는 비만아들이다. 전국 우량아 선발대회는 1971년 문화방송과 남양유업

주최로 처음 열렸다. TV중계까지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83년까지 계속된 이 대회는 해마다 시도별 예선을 거쳐 최종 결선을 치렀다. 분유회사가 공동 주최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모유보다 ‘분유’를 먹이면 누구나 우량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피력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도 아이들 잘 먹이고 잘 살게 되었다’는 정책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 놈 참 장군감이네”라는 말은 이웃집 아이에게 건네는 최상의 덕담이었다. 작곡가 겸 가수 주영훈, 바둑기사 이창호 9단, SBS 윤현진 아나운서 등이 우량아 선발대회 출신들로 알려졌다.

자전거가 행정의 중요한 수단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공무수행을 위해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녀야 했던 시절에 자전거는 유용한 ‘조달품’이었다. 사진은 1967년 인천시가 각동에 배부한 업무용 자전거들이다. 자전거를 수령한 저들 중에는 자신의 동사무소로 돌아가기 위해 족히 반나절은 페달을 밟아야만했던 직원들도 있으리라. 우체부의 자전거, 쌀집의 자전거, 양조장의 자전거... 한때 자전거는 한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재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과연 저들은 요즘처럼 24단 기어가 달린 고급 자전거들이 아파트 구석에서 녹슨 채 나뒹굴 줄 상상이나 했을까.

살아생전 김일성은 수도 없이 화형(火刑)을 당했다. 사진은 1968년 1·21사태에 대한 인천시민 규탄 대회 장면. 1·21사태는 1968년 1월 21일 북한이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기’ 위해 김신조 등 31명의 무장간첩을 보내 청와대 침투를 시도한 사건이다. 어김없이 학생들이 화형식 현장에 동원되었다. 그날 동인천역 광장을 메운 학생들은 김일성이 오래오래 불타서 한 교시가 아니라 두세 교시 수업을 빼먹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으리라.

인천(仁川)이란 이름을 얻은 지 올해로 꼭 600년이 된다. 빗바랜 과거 사진을 통해 인천의 현재를 가능해보며 미래를 그려 본다. 이 지면에는 1960년대와 70년대 이른바 인천의 ‘산업화’ 시절 사진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그 속에 땀 흘리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코 흘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1 1966년 시청에서 열린 뜨개질 강습 장면. 아기를 들쳐업고 실습에 열중한 여인들도 보인다. 2 이 아이들 ‘우량아’ 맞습니다. 1965년 인천의 우량아 선발대회에서 뽑힌 아이들. 3 우량아를 심사하기 위한 건강 체크 4 인천시청 마당에서 업무용 자전거를 수령하는 동사무소 직원들 (1967년) 5 동인천역 광장에서 열린 김일성 화형식(1968년). 교복을 입고 꾸그리고 앉은 학생들의 무표정한 모습이 생경하다.





## 송 시장, 원도심 정비구역 현장 점검

송영길 시장이 지난 달 원도심 8개 정비사업 구역을 일제 점검했다.

그달 23일부터 원도심 정비구역을 방문한 송 시장은 현장에 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이를 사업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도심 활성화로 신도심과의 격차를 줄이는 게 올해 시의 역점 추진 목표다.

시는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전면 철거에서 보전·개량·정비로 바꾸고 정비예정구역의 난립을 막고자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원도심 정비 사업을 정리해왔다. 2011년부터 정비사업 구조개선 계획을 수립, 주민 의견을 수렴해 212개소 정비(예정) 구역 중에 지난해 말까지 66개소를 해제했다.

문의 : 주거환경정책관실 ☎440-3442



## 2014 인천장애인AG, 경기종목 23개 확정

내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종목이 23개로 최종 확정됐다.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와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는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PC(Asian Paralympic Committee)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경기종목을 확정된 것이다.

경기는 육상, 유도, 역도, 양궁, 배드민턴, 사이클, 조정, 요트, 10핀볼링, 수영, 탁구, 사격, 좌식배구, 휠체어농구, 휠체어테니스, 휠체어러비, 휠체어펜싱, 휠체어댄싱, 보치아, 5인제축구(시각), 7인제축구(뇌성), 골볼, 론볼 등 총 23개 종목이다.

2010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보다 4개,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보다는 2개 종목이 각각 늘었다.

한편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41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등 총 6천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계획이다.

문의 :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458-2253

## 원도심 도화구역에 제2행정타운 착공

남구 도화동 옛 인천대학교 이전부지인 도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건립되는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JST)'사업이 첫 삽을 떴다.

우리는 지난 1월 28일 남구 도화구역 개발사업지구 내 추진하는 제2행정타운 기공식을 열고 공사에 들어갔다.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은 부지면적 9천㎡, 건축연면적 2만4천918㎡,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로 내년 4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남부수도사업소, 청년벤처타운 등이 입주하게 된다.

시는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JST) 건립을 위해 지난 2011년 6월 도화구역 내 신축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해 11월 신

축 부지를 반영한 도화구역개발계획을 변경했다.

이어 사업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지난해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대우산업개발(주)를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에 착수했다. 제물포스마트타운이 완공되면 유비쿼터스형 행정타운의 입주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모든 계층간 취업·창업 업무를 한 공간에 배치해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시는 청년창업자의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상설박람회장과 제품판매장 등을 조성해, 상시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수도추진본부 ☎440-3278



## 민간 '장애물 없는 시설'에 인센티브

우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획득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BF 인증제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에 접근하거나 이용, 이동하는 데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시공됐는지를 심사해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이번 민간부분의 인증심사비용 지원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전국 최초로 마련한 지원책이다. 시는 이를 위해 건축설계 단계부터 BF인증 시설물로 설계되도록 민간과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지원 금액은 민간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시설주 및 민간법인을 대상으로 예비인증 및 본인증에 대한 심사비로 한 개 시설물당 최고 500만원까지다.

문의 : 시 장애인복지과 ☎440-2947



## 러시아 국립음악원 간트바르크 총장 초청

유네스코 인천시협회(회장 하석웅)는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국립음악원의 간트바르크 총장을 초청했다. 유네스코 인천시협회는 지난달 28일 연수구 라마다호텔에서 문화계 및 학계 관계자,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트바르크 총장 환영 만찬 및 연주회를 열었다. 송도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세계 정상급의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국립음악원의 유치를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고, 인천과 상트 페테르부르크, 나아가 러시아 문화권 간의 상호 교류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 자리다. 연주회에는 전효숙 교수(중앙대 음대, 바이올린) 재인 페테르부르크 음악원 졸업생들이 참여했다. 한편 간트바르크 총장은 이날 환영만찬에 앞서 인천예술고등학교를 방문, 학교장과 관심사항에 대해 대담하고 학생 시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에는 송영길 시장을 예방하고 분교 설치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환담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35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비 21억 확보

우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2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개발제한구역인 계양구 다남동 산 71번지~다남마을간 도로개설(14억원), 서구 백석지구 일대와 남동구 도림3지구 도로신설(7억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1972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이들 지역 거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1년부터 공원조성, 마을 진입도로 건설 등을 해 오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지원은 일반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불편해소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시 도시계획과 ☎440-4633



## 인천 연수 CCTV 통합관리센터 오픈

연수구에 모든 용도의 폐쇄회로(CCTV)를 한곳에서 관제할 수 있는 U-CITY(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가 지난 1월 18일 문을 열었다. 2009년 문을 연 계양구 센터에 이어 지역에서 두 번째다.

센터에서는 방범용, 주정차위반·쓰레기투기단속용 등 지역에 설치된 모든 용도의 689대의 CCTV를 한꺼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다. 용도별로 나눠 모니터링하던 것을 통합해 상황실을 설치한 것으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추적이 쉬워지고 예산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한편 시는 2014년에 서·남·중·남동구와 옹진·강화군에, 2015년에 부평·동구에 추가로 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연수구청 ☎749-7432





### 도원역사에 전시관 오픈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재탄생한 송의종합운동장 관련 물품을 전시하고, 지역 체육사를 조망하는 전시관 ‘인천스포츠타입라인’이 지난 1월 17일 경인선 도원역사에 문을 열었다.



전시관은 도원역사에서 축구전용경기장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 양 벽면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했다. 축구전용경기장 신설을 위해 송의종합운동장을 철거하면서 나온 현판 등 18점이 전시돼 있으며, 송의종합운동장 시설 변천과정 등 인천의 체육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냈다. 인천스포츠타입라인은 무료로 누구에게나 개방된다. 영어와 중국어로 전시 내용을 함께 표기했다.  
문의 : 시 도시재생과 ☎440-4442

### 배우 이시영, 인천시청 복싱팀 정식입단

배우 이시영이 복싱팀에 정식으로 입단해 프로 복서로 활약한다. 이시영은 지난달 31일 인천시청 복싱팀 입단식을 가졌고, 향후 스케줄 조정을 통해 연기활동과 복싱을 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청 복싱부에는 현재 국가대표 신종훈 선수 등 4명이 활동 중이다. 이씨는 앞으로 이들과 함께 아시아경기대회를 목표로 훈련할 계획이다. 한편 2010년 복싱을 시작한 이씨는 그 이듬해 아마추어 신인전에서 우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현재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문의 : 인천시체육회 ☎888-0071



###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린홈 사업 지원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그린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린홈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지열·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아끼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친환경 주택이다. 시는 국·시비 등 24억여 원을 들여 올해 300가구를 대상으로 발전설비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독주택이나 10가구 이상 마을단지가 지원 대상이다. 태양광은 100만원, 지열·연료전지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시설규모는 통상적으로 가구당 태양광 3kW, 지열 17.5kW, 연료전지 1kW이다. 그린홈 사업은 한달에 400kW의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88만원에서 5만6천원으로 전기료를 절약해주는 효과를 낸다. 시는 오는 3월 지원 신청을 받고 4월 대상자를 선정한 뒤 사업을 시행한다.  
문의 : 시 경제수도추진본부 440-4353



### 시장실 오픈데이 운영

올해 시장실 오픈데이가 시작됐다. 지난 2011년 7월 처음 시작된 시장실 오픈데이는 학생들이 시장실을 직접 둘러보게 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갖고 새롭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시장실 오픈데이는 지금까지 총 16회가 진행됐으며, 참여한 학생들만 582명에 이른다. 송영길 시장은 미래의 경쟁력은 아이들이라며 시장실을 직접 찾은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바쁜 일정 속에도 시간을 쪼개 참석하기도 해 시장실 오픈데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장실 오픈데이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  
문의 : 시 총무과 ☎440-2506



### 수돗물 누수 줄인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유수율 목표를 선진국 수준인 90%로 정했다.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보낸 수돗물이 최종 목적지인 각 가정까지 도달하는 양을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로, 상수도 경영의 중요 지표로 활용된다. 우리시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32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원도심과 전통시장의 오래된 수도관 48km를 정비하고, 수돗물 공급량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3월까지 원도심과 도서지역에 사는 소외계층 가구 위주로 계량기 8천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시 상수도본부는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3억 6천500만 원을 확보했다.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720-2132

### 음식물쓰레기 82% 공공시설 처리

올해부터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 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따라 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으나, 우리시는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1일 평균 650t 정도 발생하는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의 82%인 530t은 환경공단 광역시설(330t)과 남구(199t) 등 공공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20t은 7개 민간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시설 노후화와 용량 부족으로 공사 중인 남동구 처리시설이 오는 8월에 준공돼 정상 가동하면 전량을 공공시설에서 처리하게 돼 민간업체와 갈등으로 인한 수거 중단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폐수를 육상처리하도록 공공시설을 확충하겠다”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문의 : 시 자원순환과 ☎440-3562



### ‘핑크의자’ 보면, 일단 양보하세요

예쁜 분홍색의 뒷개가 씌여진 좌석... 버스를 타면 젤 먼저 눈에 띄는 이 좌석을 이용하기 전엔 앞으로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다. “당신은 현재 임신 중이십니까?” 라고 말이다. 최근 우리시는 시내버스 250대에 총 500석의 임신부 전용석을 마련했다. 아이날기 좋은세상 인천운동본부, 인천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공동으로 마련한 임신부 전용석은 버스 운전석 뒤편 2~4열 좌석에 마련되어 있다. 임신부의 경우 임신 초기일 때 배속의 아이와 임신부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지만, 외관상 크게 표시가 나지 않아 그동안 자리양보에서 외면당해 온 게 현실이다. 임신부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임신부 전용석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노약자에 대한 양보가 당연했던 옛날과 달리 점점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약자가 배려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아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문의 : 아이날기 좋은세상 인천본부 ☎451-4050



###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회의 참석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철, 전용철 의원은 지난 달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 제2차 자문회의에서 원도심지역에서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해 용적률 상향 및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 제외 등을 적극 검토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경관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보다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해 왔으나, 추진단은 도시계획위원회와 협의해 조례상 기준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구역에 한해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조례개정도 추진한다. 김병철, 전용철 의원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비정규직 처우개선 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달 14일 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실태파악을 통해 2013년도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강병수 시의원의 주관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홍 시의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및 인천비정규직 연대회의 관계자 회의 등이 참석하여 학교비정규직의 실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 장학금 8천700만원 어려운 학생들에 전달

인천시의회가 지난 5년 여간 시의원들로부터 모금한 장학금 8천7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에게 지난 1월 21일 전달했다. 시의회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매월 5만 원씩 추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학업에 힘쓰는 중학교 1학년 16명을 선발해 매월 10만원씩 학생명의로 적립해왔다. 고교 졸업과 함께 진학 또는 사회진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의회는 2008년 4월 지원규정을 제정하고, 2011년 12월 26일 이웃돕기 전문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정기탁협정을 맺었다. 이성만 시의회 의장은 시의원 37명과 6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 “소중한 꿈을 키워며 미래의 주역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장학생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글로벌 시대에 역량 있는 인재가 돼 우리나라를 창조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인/터/뷰

## “LH관련 개발사업 정상화에 주력”

김병철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조사특위 특별위원장



인천시와 도시개발에 있어 협력관계인 LH공사, 세계 경제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영종하늘도시,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제3연륙교 건설사업,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및 십정2지구 등 LH공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민원이 크다는 지적이 높다.

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는 LH와 관련된 개발사업에 대한 사실 확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민원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2012년 7월 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6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사업지연에 따른 행정조사를 벌였고,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청라루원시티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폈다.

특위는 그간의 활동을 통해 루원시티 철거가 현재 70%를 넘어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이 본격화 될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진정성 있는 대화로 각 사업별 업무협의를 이끌고 사업이행을 촉구했다. 특위는 인천에서 발생하는 LH공사의 개발이익이 인천지역으로 재투자 될수 있도록 협의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특위는 3월 활동을 종료한다. 활동결과 보고서는 조사특위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최종 의결한 뒤 4월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 태국방콕 시의회 의원 방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천시의회와 우호교류 차원에서 방인한 태국 방콕시의회 의원 13명을 영접했다.

시의회 이성만 의장은 방콕시의회 방문단을 적극 환영했고 양 도시간 우호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반자적 입장에서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 등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방콕시의회 대표단은 강화문화역사유적지, 경제청 홍보관, NETT글로벌대학 캠퍼스, 인천항만공사, 중구문화의 거리, 월미문화 관광특구 방문 등을 통하여 인천의 발전과 관광인프라를 둘러봤다.

### 2013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방향

### 복지구현, 2014 인천AG 차질없는 준비 최선

인천광역시의회는 2013년 의정활동 방향을 GCF 사무국 유치를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에 대한 개발 속도를 높이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 보편적 복지사회를 구현은 물론 지방재정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 3대 원칙 가시화’, ‘복지사업 지속적 확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가속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차질없는 준비’,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 등의 의정운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첫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3대원칙’을 가시화하도록 노력한다

2013년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의회’, ‘열린의회’, ‘책임의회’ 의정활동 3대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며 이를 통해 인천의 현안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문제 해결과 인천시의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둘째, 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복지사업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필수 요소로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예산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서민복지예산,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무상보육과 출산장려금의 둘째아 확대 등의 복지사업과 늘어난 장애인 복지 예산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현장을 구석구석 돌아보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그분들의 마음과 목소리를 파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셋째, 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가속화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  
국제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로 인천시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에 이를 계기로 송도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가속화 한다. 이는 인천 전 지역으로 파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년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는 D-1년이 되는 해로써 성공적인 대회를 치루기 위하여 대내·외적인 홍보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어느 해보다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다섯째,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을 실현하겠다

시의회는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인터넷 생방송이나 녹화방송으로 공개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집행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한다. 민의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시의회, 견제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시의회, 오로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 Info+box

### 2월 문화행사 보러오세요

울목도서관은 2월 문화행사를 연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도시인문학 강좌〉

제목 : 2013년도 도시인문학강좌

(근대도시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묻다)

운영 : 2월 23일(토) 오전 10시

교육주제 : 해외의 역사문화도시(3)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랑스의 도시개발

강사 : 민유기(광운대)

장소 : 울목도서관 본관 2층 소극장

문의 : 770-3804

참고사항 : 인천시민 및 청소년

(10강 이상 참가한 수강자에게 수료증 교부)

#### 〈어린이 상시 프로그램〉

운영기간 : 2월 1일(금)~28일(목)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대상	비고
영어교육컨텐츠 상영	매주 화~금 오후 3시	누구나	
『이야기보따리 술술』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매주 화, 목, 토 오후 4시	누구나	
『가족과 함께 레디~액션』 (가족 DVD 관람석 운영)	상시	2~4인 가족 (12세 미만 보호자 동반 필수)	신청 후 이용
『독서왕! 울목 밤틀이』 (울목 밤틀이 카드 도장 받기)	상시	5세~초등생	매월 최고점자 각 1인 선정 후 사서체 험 및 선물(도서) 증정
독서통장 발급	상시	반납권수 20권 이상인 5세~초등생	

운영장소 : 울목도서관 별관 어린이실

문의 : 770-3811, 3808

### 2013년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진행을 보조하고,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준비된 대학생 서포터즈 자원 봉사자를 모집한다.

활동기간 : 2월 말~12월 말까지, 10개월간 활동 예정

지원자격 : 청소년(진로)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고 열정을 가지고 활동에 임할 수 있는 대학생 및 휴학생

모집기간 : 2월 5일까지 홈페이지 (www.jobguide.or.kr)〈커뮤니티→문서자료실〉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후 작성하여 회원가입, 로그인 후〈이용안내→참가자접수〉

문의 : 762-5642

### 먼지 쌓인 통기타를 꺼내자! 2013 기타 킹

‘여섯 줄의 은하수, 라디오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경인방송(90.7MHz)은 추

운 겨울, 따뜻한 통기타 연주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기타킹 오디션은 통기타

만 칠 수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 10일

부터 2월 5일까지 네이트에서 연주 동

영상을 접수받았다.



경연부문 : 통기타 연주, 연주와 노래,

그리고 손가락(피크)을 제

외한 상상가능한 모든 기타 연주(기타 퍼포먼스) 부문 신설

본선 : 라디오생방송 진행. 2월 13일부터 1주일간 저녁 8시부터 10시

까지 매일 경인방송 90.7MHz로 청취. 생방송 문자투표와 심사

위원 점수로 결승진출자 선발

심사위원 : 기타리스트 김세황(벙크트), 블루스기타리스트 김목경, 기

타리스트 박주원, 가수 이치현 등

결승 : 2월 23일 3시 인천 트라이볼 공연장. 무료 공연으로 진행.

관람을 원하면 경인방송 기타킹 홈페이지

www.itvfm.co.kr/guitrarking를 참고

문의 : 830-0203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해찬나래 신입생 모집

동구청소년수련관은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해찬나래 신입생을 모집한다. 방과후 교실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대상 : 중학교 1~2학년

운영기간 : 1월~12월

운영시간 : 월~금 오후 4시~8시 30분, 매주 토요일

참가비 : 전액무료(교재비 본인부담)

내용 : 학습지원과정, 주중특기적성과정, 생활지원,

주말체험, 여름캠프 등

#### 시간표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1교시	자기주도	자기주도	자기주도	자기주도	자기주도	2013년 특성화 프로그램
2교시	동아리활동	학습보충	국어	자치활동	영어학습 프로그램	
3교시	급식					
4교시	모듬북 우쿨렐레 방송댄스	영어	국어	수학	체육/미술	자연힐링체험활동
5교시		수학	과학	영어	체육/미술	

문의 : 777-7942

## Info+box

### 미추홀문화회관 새봄맞이 문화행사

미추홀문화회관은 새봄을 맞아 풍성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무료강좌는 물론 취미에서 전문가 과정까지 다양한 과정이 시민을 기다리고 있다.

강좌기간 : 3월 2일~5월 24일(3개월)

기존강좌 재접수 : 1월 28일(월)~2월 2일(토)

신규강좌 접수 : 2월 4일(월)~3월 2일(토)

(개강 후 중도수강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 문화시민을 위한 무료 강좌(3개월 과정)

##### 〈어린이〉

요들과 핸드벨(요들전문강사 박명옥)

어린이 한자교실 초급반(한자자격검정 전문강사 최종영)

##### 〈일반〉

서예초급(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최종영)

주부 연극 & 뮤지컬(인천시립대 연기예술학과 강사 임기원)

춤멜라가 되자! 오전성인발레(발레전문강사 한대옥)

드로잉 기초부터 완성(서양화가 라선)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인천대 객원교수 김준기)

디지털카메라&포토샵(전 인천사진협회장 조만년)

한국무용(금빛평생교육자원봉사 박영숙)

슬림미즈밸리댄스(밸리댄스 전문강사 공병순)

성인영어회화 초급반 (영어회화전문강사 김나연)

성악교실(성악가 조외숙)

하루의 마무리, 논어와 도덕경으로 세상읽기

(인천대 국문과 객원교수 김준기)

테라코타실기(인천미협사무국장, 조각가 김창빈)

나를표현하라! 직장인연극&뮤지컬

(인천시립대 연기예술학과 강사 임기원)

핸드메이드 천연제품만들기(인천수제비누협회 최미영)

문의 : 765-0220, 0250

### 3월부터 뇌수막염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인천시는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만12세 이하 아동들의 국가 필수예방접종 10종(BCG, B형간염, DTaP, IPV, DTaP-IPV, Td, Tdap, MMR, 수두, 일본뇌염)에 대해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영유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백신에 대해 추가 무료 예방접종을 한다.

대상 : 10종(BCG, B형간염, DTaP, IPV, DTaP-IPV, Td, Tdap, MMR,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 폐렴구균 백신추가(65세 이상))

장소 : 3월부터 보건소나 집 근처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문의 : 440-2747

### ‘유용한 금융제도(u-보금자리론 및 주택연금)’활용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인 주택연금 등 시민을 위한 유용한 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및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높은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u-보금자리론’을, 본인의 노후생활 및 부모님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원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주택연금의 경우 ‘13년 2월 1일부터 지급기준이 변경(감소)된다.

#### 주택연금

연령 : 부부 모두 60세 이상

대상 주택 : 시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 및 노인복지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법상 주택)

부부기준 주택 1채 소유

가입하면 좋은 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 지급),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

#### 월 지급금 예시(주택가격 : 1억, 3억 정액형 기준)

가입 연령	1억	3억
60세	240	720
70세	340	1,039
80세	530	1,609

#### 주택연금 종류 및 상황

부부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상실, 1년 이상 미거주 등

대출잔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상환

주택가격 > 대출잔액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됨
주택가격 < 대출잔액	부족분에 대해 별도 청구 없음

문의 : 441-2159, 2172

### 여성복지관 임상심리사·가족치료사 공개모집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은 임상심리사 및 가족치료사를 공개 모집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바란다.

모집인원 : 임상심리사 1명, 가족치료사 1명

모집방법 : 공개모집(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

접수기간 및 방법

서류접수기간 : 1월 28일(월)~2월 8일(금) 18:00

접수처 : (우)402-848 인천 남구 경원대길 864번길24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문 의 : 440-6512



Info+box

겨울방학 특별 체험 ‘상상 그 이상! 그림자 극장’

남동문화예술회관은 그림자 연극을 이해하고 직접 만들어 보는 ‘그림자극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요시간 : 1시간 15분  
공연일시 : 1월 21일(월)~2월 28일(목), 총 36일, 전체 44회 공연  
공연시간 : 평일 오전 10시 30분 (단체에 한함, 시간 조정 협의 가능)  
토, 일 오후 2시 / 4시 (개인 또는 단체(10인 이상))

장소 :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 · 소

관람 대상 : 5세 이상 (가족 동반 환영)

관람료 : 개인 1만원 단체 8천원

- 내용 : 1. 그림자와 만나기 – DIE 워밍업 연극과 놀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짧은 그림자 공연  
2. 스토리텔링 – 우물쭈물 오소리 우화 / 노란 양동이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3. 캐릭터 만들기  
4. 그림자 연극놀이 체험 – 그림자 연극 만들기

문의 : 453-5710

2013 인천실내&무도(武道)AG 통역전문요원 모집

2013 인천실내&무도대회 아시아조직위원회는 통역 전문요원을 모집한다. 외국어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바란다.

신청기간 : 1월 28일~2월 20일(24시까지)

접수 : e-mail 조직위 홈페이지에서 통역전문요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를 출력, 작성 후 e-mail 송부  
서면 통역전문요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를 작성, PCO업체에 제출

인원 : 340명(의전 115, NOC 서비스100, 국제협력15, 등록12, 경기기획13, 경기운영45, 선수촌10, 언어지원풀 및 예비인력 30명)

자격 : 영어 능통자(국제회의 유경험자 우대)

문의 : 458-2453

그린 송도컨벤시아 특별 기획 전시회

인천도시공사는 GCF본부 유치에 맞추어 송도컨벤시아가 그린 월드컨벤션센터로 탈바꿈하는 첫단추로 ‘그린 송도컨벤시아 특별 기획 전시전’을 개최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을 바란다.

전시제목 : 그린 송도컨벤시아 특별기획 전시회 ‘그린은 힐링이다’

전시기간 : 2월 28일까지, 장소 : 송도컨벤시아

그 외 볼거리 : 1층 반대편 전시된 ‘송도컨벤시아 50배 즐기기’사진전  
600권의 책을 자유로이 볼수 있는 북카페 등

문의 : 210-1037

새 봄 향기 물어있는 문화강좌에 참여하세요

동구청소년수련관은 2013년 봄학기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새봄 향기 뽐낼 배어 있는 문화강좌에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프로그램명	2013년 봄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동구수채화전〉 그림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신나는 도서관학교 〈봄학기〉
일시	3월5일~5월 25 (3개월 학기제)	3월5~10일	3월 5일~ 5월 24일
시간	각 강좌별 상이함	09:00~18:00	강좌별상이
대상	유아 · 유치, 초등 · 청소년, 성인	지역주민	초등 1~6
내용	유아 · 유치 미술, 가베, 동화구연, 발레, 뮤지컬 잉글리쉬 등 초등 · 청소년 가베, 동화구연, 발레, 주산 수학, 검도 등 성인 수학기배지도사, 요가, POP, 수채화 등 무료 성인문해 초급,중급	〈동구수채화전〉 정소: 동구청소년수련관 3층 새솔 소극장 개회식: 3월 5일 (화) 오후5시 지도강사: 강유자	독후감상화 그리기, 영화로 사교력키우기, 세계사논술, 한국사논술 등 독서교육 프로그램 진행
접수	2.1~2.12 : 기존수강생 2.13~ : 신규수강생 및 기존수강생, 신규강좌 신청	-	기존: 2.1~2.12 신규: 2.13~선착순마감
참가비	각 강좌별 상이함	무료	정규 48,000 (3개월)
문의	☎777-7942		☎777-7942

‘강’S 배다리 포토스토리 전

사진전문갤러리 배다리에서는 ‘강’S 배다리 포토스토리 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책과 사진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진전이다.

일시 : 1월 25일~2월 13일

장소 : 사진공간 배다리

내용 : 책과 사진이 어우러진 사진전

문의 : 010-5400-0897

정보기술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에서는 2013 전반기 신입생을 추가모집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바란다.

모집전공 : 컴퓨터, 정보통신, 임베디드시스템, IT정책, 정보시스템관리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야간) ○○명

수업연한 : 4학기(2년)

지원자격 :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예정) 자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

문 의 : 835-8602

불소야,

충치를 부탁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는 것으로, 그만큼 치아의 중요성은 크다. 나이 든 ‘이빨 빠진 호랑이’는 산토끼에게 조차 놀림감이 된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음식물을 제대로 씹어서 소화하지 못하면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치아를 빠지게 하는 첫 번째 원인은 다름 아닌 충치다.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설탕소비가 급격하게 늘었다. 대부분의 설탕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에 들어있다. 유치(젖니)가 영구치로 바뀌는 중학교 1학년생의 절반도 넘는 60%가 충치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다.

충치는 발병 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상책이다. 치아가 모두 빠지면 의치를 하게 되지만, 의치는 음식물을 씹는 힘이 자연치아의 10%에 불과하다. 충치가 생기면 마취를 하고 썩은 치아 부위를 갈아내는 등 치료과정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기에 예방이 중요하다.

충치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소다. 불소이용법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은 불소가 적당하게 들어 있는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불소는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물질이어서 대부분의 음식물에도 조금씩 들어 있다. 우리 몸은 누구나 불소를 내포하고 있기에 일반적인 음식물로 섭취하는 불소의

양은 충치예방에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모자라는 양을 수돗물에서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충치 예방사업은 1945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로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현재 미국 이외에도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이스라엘은 물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등지의 동남아에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 진해에서 처음 실시되어 전국 23개 지역 25개 정수장에서 300만명 이상이 이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다. 불소는 염소와는 달리 끓여도 그대로 남아 있으며 수돗물로 보리차를 끓여 마시거나 음식물을 요리하여 먹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2011년 전국적인 사업 효과를 평가한 결과, 충치 예방효과가 41%이었고, 특히 세대주 학력이 중졸 이하로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에게서 66%로 더 효과적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충치에 더 많이 걸리기에 예방효과가 더 크다. 충치는 아이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에서 발생한다. 특히, 침이 적게 분비되는 노인들은 이빨리가 겉으로 노출되고 여기에도 충치가 많이 생기고 있다. 불소 수돗물은 노인들의 이빨리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커서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급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 김진범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단장



# Book



##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2

이지성, 인현진 | 다산라이프 | 2012

출간과 동시에 전국의 초중고생, 대학생, 직장인, 주부에 이르기까지 전국민들에게 책읽기 열풍을 불러온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의 저자 이지성이 후속작 2권을 통해 실질적인 ‘성공독서법’을 제시했다. 1권이 독자들에게 필요한 ‘기본독서’를 설파했다면, 2권은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생활을 변화시켜 실제 성공을 거머쥐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무조건 다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의무감, 취미로 독서를 한 사람들에게 독서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자신의 상황과 단계에 맞는 독서법을 안내해 준다.



## 인문의 바다에 빠져라

최진기 | 스마트북스 | 2012

오마이뉴스에서 2010년부터 방송한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최진기의 인문학 특강’을 책으로 엮은 인문입문서로 《매트릭스》의 모티브가 된 장 보드리야르에서부터 플라톤까지 순서를 시간의 역순으로 구성하여 모두 42개의 생각으로 정리한 책이다. 실제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사회적 이슈와 다양한 사례, 역사적 사건과 접목하여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생생한 인문지식을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화, 신문기사, 삽화들을 통해 지루하지 않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인문학의 기초를 탄탄히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나 자신과의 대화

넬슨 만델라 | 알에이치코리아 | 2013

이 책은 27년 여의 감옥생활과 5년의 대통령 재임 시절에 쓴 일기, 편지, 원고 등 최초로 공개되는 개인 기록물을 집대성한 넬슨 만델라의 한평생을 고스란히 담은 책. 집단창작이 아닌 만델라가 쓴 진정한 의미의 유일한 자서전이다.

총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ANC의 청년회원으로 활동하며 무력투쟁을 위한 군사훈련까지 받았던 청년 시절부터, 감옥에 수감되어 사색의 힘을 얻고 마침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과정을 보여준다. 역동적인 삶 속에서 그가 겪은 갈등과 세계관의 변화, 그속에 내려진 결단의 순간을 만날 수 있다.



##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강세형 | 쌤앤파커스 | 2013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의 저자이자 《김동률의 뮤직아일랜드》, 《이적의 텐텐클럽》 등 마니아 청취자를 보유한 라디오 프로그램 메인작가로 활동했던 강세형이 일상에서 맞닥뜨린 가슴 먹먹한 순간들과 그 안에서 보듬고 위로하며 사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에세이다.

나 자신에게 실망할까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 두려운 마음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못하고 미루기만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나만 힘있게 아니었다는, 나만 지친게 아니었다는 깨달음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안을 전해준다.



## 추천도서 목록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4

순번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1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2	이지성, 인현진	다산라이프	성공을 현실로 만드는 책읽기 프로젝트
2	인문의 바다에 빠져라	최진기	스마트북스	쉽고 바로 써먹는 생생한 인문학 강의
3	대통령을 위한 수학	조지 슈피로	실림	민주주의를 애대한 수학의 정치적 패러독스
4	(김미경의) 드림은	김미경	쌤앤파커스	꿈은 찾는게 아니라 발명하는 것이다
5	나 자신과의 대화	넬슨 만델라	알에이치코리아	넬슨 만델라의 한평생을 담은 책
6	디스 이즈 다이어트	유화이	양문	방문자수 1650만명을 넘어선 파워블로거가 전하는 다이어트 비법
7	세상의 모든 책장	알렉스 존슨	위즈덤스타일	애서가의 꿈, 세상에 없는 나만의 서재 만들기
8	콘서트 고어	하은경	열음사	음악치료사 하은경이 전하는 유쾌음악회
9	미추홀연가	정경해	문학의전당	인천의 시인이 그린 인천 사람들의 삶과 꿈
10	레이제라블	빅토르 위고	민음사	책,영화,뮤지컬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11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강세형	쌤앤파커스	어쩌면 누구나 느끼고 경험하고 사랑했을 이야기
12	왕의 하루	이한우	김영사	실록과 사관이 미처 쓰지 못한 비밀의 역사

## 2012 추억의 순간들

# 인천이야기

## 사진 공모전 수상작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가 이번 겨울엔 ‘스노우파크’가 되었다. 공원언덕의 내리막길이 천연 눈썰매장으로 변했다. 동북아 트레이드 초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한 눈썰매장의 모습이 매우 이채롭다. 눈썰매 타는 맛에 아이들은 맹추위에도 신바람이 났다. 덕분에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눈썰매가 동이 날 정도였다.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던 꼬마가 넘어졌다. 썰매는 주인을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눈길을 내쳐 달린다. 뒤늦게 일어난 꼬마가 썰매를 따라 달린다. 아~ 기다려~

여준석 / 인천 남동구

인천시 대변인실 미디어팀과 다음인천센터가 공동으로 지난 2012년 12월 17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2012 추억의 순간들, 인천이야기 사진'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공모했습니다. 총 279명이 641편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 대상(1명) 1점과 우수상(2명) 6점을 선정해 지면에 소개합니다. 나머지 장려상 등 작품은 옆 QR코드를 인천시 소셜웹(social.incheon.go.kr)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사진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나요? 어떤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 책을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지요. 요즘엔 가족이 함께 맛 나는 음식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을 땐 재래시장을 찾아가세요. 그 중에서도 비린내 물씬 풍기는 76년 역사의 소래포구는 삶에 대한 의욕과 경쟁의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인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 만선의 배가 들어오는 포구의 모습은 그 시작부터가 경쟁입니다. 잡아온 생선과 꽃게를 배에서 끌어 올려 경매장으로 이동하고 경매 붙은 생선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소리소리 지르는 경매인의 표정에서 삶에 대한 역적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선을 파는 사람은 많이 팔아 좋고 소비자는 싸고 싱싱한 생선을 거래하는 시끌벅적하고 미소가 떠나지 않는 소래포구를 삶이 힘들 때 다녀오세요. 소래포구가 희로애락의 정의를 내려줍니다.

김철근 / 경기도 시흥시



난 심정동의 모습이 좋다. 작은 골목사이로 사람사는 맛이 난다. 예쁜 벽화들로 꾸며진 동화같은 마을... 마을 사람들은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 예쁜 마을이 변치않길 바라는 건 내 욕심일까. 만나는 사람마다 담소를 나누고 풍경은 정겹다.

이우신 / 인천 부평구





물과 바람 길이 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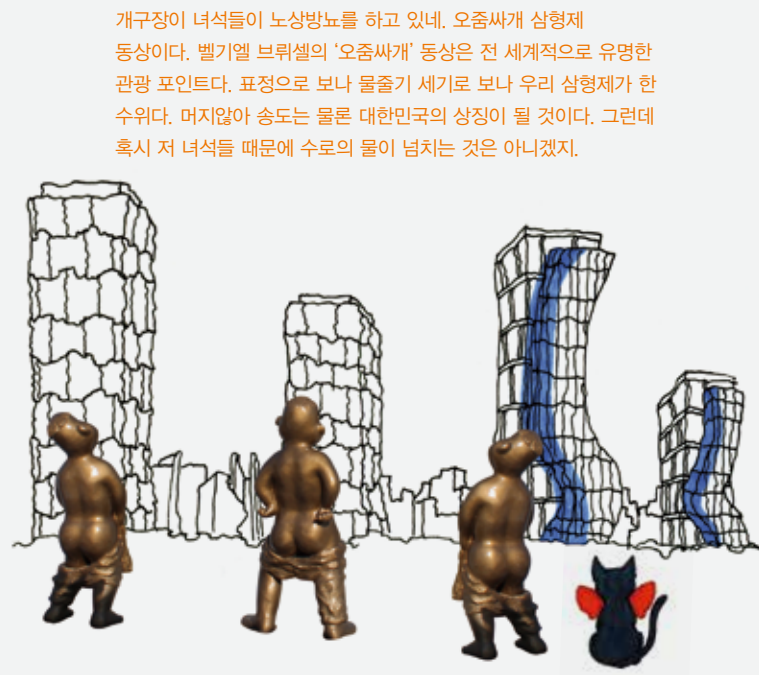
**그곳에 미래가 열린다**

일러스트 · 글 차지원

언제부턴가 세련되고 도회적인 CF의 배경에는 어김없이 송도국제도시의 정경이 펼쳐진다. 사이의 '강남 스타일'에도 송도의 모습이 '스타일리쉬'하게 담겼다. 알고 보면 '오빤 어느 정도 송도스타일'이었다. 얼마 전에는 GCF(녹색기후기금) 유치로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한 동안 사람들의 입에는 '송도, 송도...'를 달고 다녔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인구에 회자(膾炙)된다'라고 한다지. 이런 송도국제도시의 중심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명품 공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송도센트럴파크가 있다. 송도국제도시 중앙을 유유히 흐르는 물길에 몸을 맡기면 최첨단 인프라와 쾌적한 자연이 어우러진 IFEZ의 웅장한 모습을 만나게 된다.



송도국제도시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스마트 도시’라는 별칭을 붙여줬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첨단, 자연 그리고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최첨단 옷을 입고 그 안에 사람과 자연을 품은 ‘그린 스마트시티’, 곧 깨끗하고 따뜻한 첨단도시가 바로 송도국제도시다. 인천 고양이가 도도(都島)가 뽐뿌 언 네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도착한 곳은 바로 송도센트럴파크. 우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다채로운 건축물들이다. 어떤 아파트는 트위스트 춤까지 추고 어떤 빌딩은 밥그릇을 엮어 놓았네. 건축물도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하더니 그 말 그대로다.



개구장이 녀석들이 노상방뇨를 하고 있네. 오줌싸개 삼형제 동상이다. 벨기에 브뤼셀의 ‘오줌싸개’ 동상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포인트다. 표정으로 보나 물줄기 세기로 보나 우리 삼형제가 한 수위다. 머지않아 송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혹시 저 녀석들 때문에 수로의 물이 넘치는 것은 아니겠지.

송도센트럴파크 안에 바닷물로 작은 강을 만들었다. 덕분에 대한민국 최초의 해수공원이란 타이틀이 붙었다. 공원 중앙을 가로지르는 길이 1.8km, 폭 12m~10m의 물길과 산책로, 아치형 다리 그리고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인공 언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직선과 면의 자연스런 만남은 세련된 도시의 정원을 만들었다.

엉덩이 싹룩싹룩 꼬리는 살랑살랑~ 2월의 바람이 상쾌하다. 좀 나른한데 잠시 도서관에 가서 지식을 쌓아 볼까? 어, 센트럴파크 곳곳에 숲속도서관이 있네. 강바람 맞으며 야외에서 잠시 책 읽는 맛도 새롭다. 맞다. 인천시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 수도’가 되기 위해 ‘책 읽는 도시 인천’을 추진하고 있더니 좀 졸립더라도 한권 더 봐야겠다. 그런데 여긴 왜 생선가게에 관한 책은 없지.



아이타워에는 GCF 사무국 외에 유엔아태정보통신교육센터(UNAPCICT), 유엔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 동북아시아사무소,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 유엔 기탁도서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 등 6개 국제기구도 함께 입주한다. 이제 머지않아 이 ‘작은 UN 빌딩’에 오면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언어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오기 전에 그들의 ‘상징’은 이미 그곳에 우뚝 서있다. 아이타워 앞에는 세계인의 얼굴들이 다양한 표정으로 센트럴파크를 내려다보고 있다. 120개 나라를 상징하는 탈로서 각 나라 고유한 민족 정서를 반영한 대표적인 상징물 ‘지구촌의 얼굴’이다. 탑 가까이 다가서보니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The Face of global**  
The art work is symbolized masks from 120 countries, which reflect its owns ethnic sentiments.



지난달 탐방한 월미산에서 송도국제도시까지 한달음에 달려오느라 고생한 도도의 발은 산책로 지압길에서 잠시 호강한다. 지압길을 따라 찬찬히 걷다보니 저 멀리 우뚝 솟은 아이타워의 모습이 직선과 사선, 녹색아트리움을 통해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하며 위풍당당하다. GCF로 유명한 바로 그 건물. 아이타워(I-Tower)는 지하 2층, 지상 33층으로 지어진 본관동과 이와 연결되는 문화동 · 민원동 등 3개동으로 구성되었다. 올 7월께 입주를 시작하는 GCF 사무국이 9~24층 중 15개 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이달 안에 인천경제청 사무실이 먼저 입주해 25층에서 31층까지 이 건물 7개 층을 사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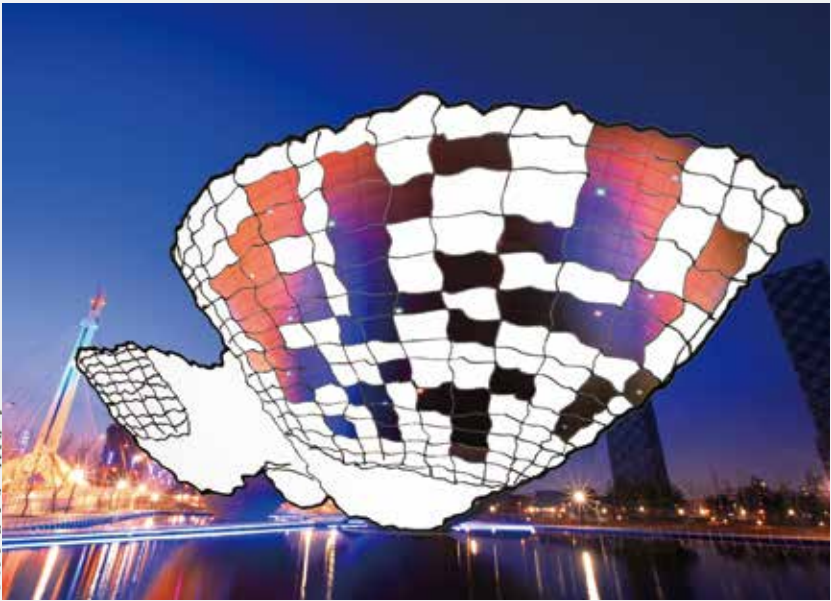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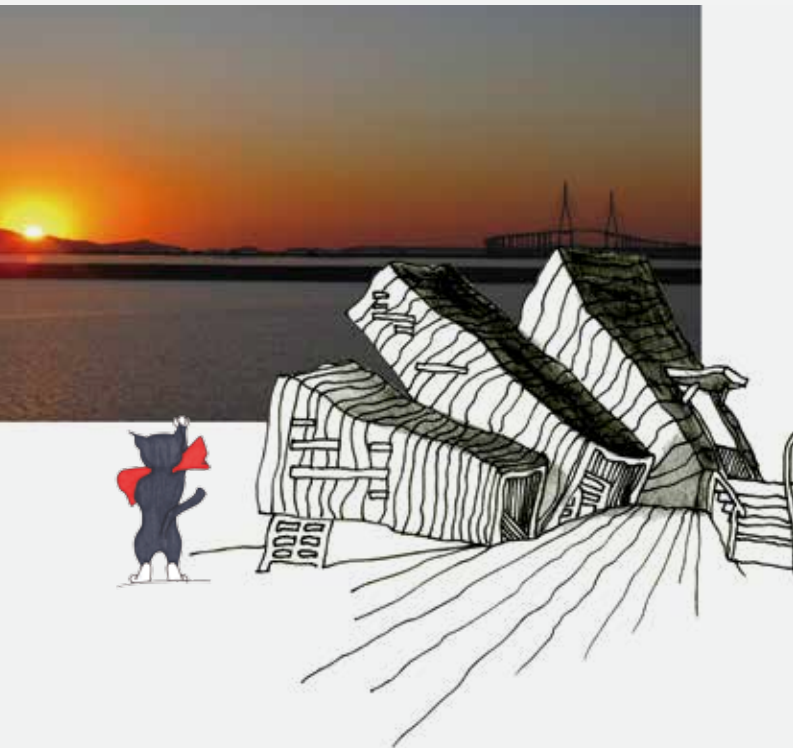


송도국제도시는 이제 그 자체가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다. 인천경제청은 아예 센트럴파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아홉가지 뛰어난 경관 즉 ‘센트럴파크 9경(景)’을 조성했다. 수상택시에서 바라보는 경치, 흐드러지게 핀 철쭉동산, 전통문화가 피어나는 한옥마을, 호수교에서 바라보는 석양, 아이타워와 조우하는 지구촌의 얼굴, 바람소리 들려오는 억새밭, 한가로이 풀을 뜯는 꽃사슴, 송하정의 아름다운 달빛, 송도 비치 해수풀장을 선정했다. 모든 9경 앞에는 작은 나무집이 하나씩 서있다. 새집처럼 생겼지만 그 속에는 작은 새 대신 도장이 들어있다. 아홉 번의 도장을 뽀 찍으면 그댄 ‘송도스타일’이 된다.



빌딩 숲을 흐르는 큰 수로는 예쁜 풍경도 선사하지만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준다. 수상택시를 타고 유유자적 센트럴파크를 돌아볼 수도 있고 보트하우스에서 보트를 통째로 대여해 이국적인 보트파티를 즐길 수도 있다. 앞으로는 수상스키와 카누도 할 수 있다니 친구 혹은 가족끼리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더없이 굿! 보트하우스 옆엔 작은 카페 하나가 있다. 카페테라스에 앉아 보트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좋은 볼거리다.

한 낮의 빛이 점점 소멸될 갈 즈음엔 서둘러 수로 끝, 아이타워 뒤쪽의 해변으로 달려 가보자. 그곳에 ‘오션스코프(OceanScope)’가 있다. 오션스코프를 보는 순간 독특하면서 익숙한 모양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항만과 공항을 두루 갖춘 물류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다섯 개의 대형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었다. 이름하여 컨테이너 아트. 각각 다른 높이와 각도(10, 30, 50)의 디자인은 마치 인천의 하늘 땅 바다를 볼 수 있는 눈높이인 듯하다. 정말 좋은 자리다. 송도국제도시와 영종 하늘도시를 잇는 꿈의 다리 인천대교는 사방팔방에서 다 보이지만 이곳이 명당 중의 명당이다.



고양이를 부탁해

천방지축 고양이 ‘도도(都島)’가 인천의 곳곳을 스케치하며 기행합니다. 도도는 도시 ‘都’자와 섬 ‘島’자를 의미합니다. 인천은 마치 고양이 같은 도시입니다. 사람에게는 잘 길들여지지 않지만 장소에 대한 애착이 강한 속성을 가졌습니다. 도도가 인천의 ‘생선가게’를 맛있고 멋있게 소개할 것입니다.



다음

해가 지면 수로 한편에 또 다른 빛이 든다. 트라이볼이 화려한 색으로 변신한다. 잔잔한 물 위에 떠 있는 세 개의 볼(주발)이 마치 한폭의 정갈한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 어찌 보면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우주선이나 UFO를 연상케 한다. 세계 최초의 역 셸(逆 Shell) 구조의 건축물 트라이볼(Triple + bowl)이다. 하늘(공항), 바다(항만), 땅(광역교통망)이 조화된 인천을 상징하는 동시에 송도, 영종, 청라의 의미도 담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천700㎡ 규모의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볼이 최근 본연의 모습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다. 인천문화재단이 재개관한 프로그램 〈트라이볼 ‘마법 같은 2013년’을 꿈꾸다〉처럼 이 큰 그릇에 맛있는 문화가 마법처럼 365일 듬뿍 담기기를 기대한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 이웃과 마음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드라마고(생활문화협동조합 퍼포먼스 반지하 대표)

어제 겨울비에 쌓였던 눈들이 녹아내렸고 오늘은 찬바람이 없어 일하기 좋은 날이라는 생각으로, 사무실로 쓰는 한옥의 문을 빼그덕 열었다. 연탄불을 갈고, 물을 끓여 커피 한잔을 타놓았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글 쓰는 일을 시작한다.

작년 봄 내가 일하는 단체는 창영동에서 송현동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창영동에서 5년 동안 마을에서 청소를 하고 화단도 만들고 이웃집을 고치고 벽화도 그리는 활동을 하면서, 동네 할머니들과 반가운 인사를 하고 반찬도 나눠 먹던 시간은 10여 년 전 마을 활동을 시작하며 꿈꿨던 장면이 실제로 펼쳐진 경이롭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미루던 아이도 둘이나 낳았다.

그러나 삶은 변하기 마련이다. 봄이 가까워 오면서 함께 일하던 이들이 단체를 떠나면서 전셋집을 비워줘야 했고 마을센터의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그동안의 노고와 소중한 이웃이 있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사실 나 스스로가 그동안 진행해 온 마을 활동에 대해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상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관계했던 이웃과 마을일을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하고 옆 마을에 반 폐가인 한옥을 얻었다. 두 달간 수리하면서 앞 골목에 쓰레기가 쌓이는 곳을 주변에 버려진 나무를 모아 조그만 화단을 만들었더니 새 이웃들이 깨끗해졌다고 좋아하였다. 집도 이사했는데, 낡은 벽을 알록달록 색을 입혀 칠했더니 골목입구가 밝아졌다고 이웃들이 칭찬해 흐뭇했다. 좋은 일이지만, 두 집을 수리하고 이런 저런 일들로 활동과 생계를 유지하느라 바쁘게 지내다 보니 집을 옮긴 목적인 휴식은 이루지 못했다. 해가 바뀌었고, 여러 곳에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묻는 연락이 온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내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 데 말이다. 마을 활동을 하다 보니 ‘돈을 벌어야지 봉사만 하면 되니?’,

‘아이를 낳았으니 돈 많이 벌어야 겠다’는 등의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면 나는 ‘소박하면서도 정성 어리게 일하다보면 먹고 사는 일은 해결할 수 있고, 좋은 이웃과 아름다운 마을이 있으니 나도 행복해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소중한 재산도 쌓는 것이지요’라고 답한다.

올해 이뤄지는 ‘마을 만들기’가 참가자들의 가까운 곳으로부터 불편한 환경을 개선하고 나와 이웃의 관계를 따스하게 하는 활동이 되길 바란다. 주민과 함께 공원과 텃밭을 만들고 벽화도 그리는 일을 하더라도 각자가 자신의 생활터전과 가까운 곳부터 가꾸가는 순서를 정하고 주변의 물건하나 음식하나 사람하나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지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더불어 우리시대의 삶과 다음세대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 글을 쓰는 덕분에 올해를 시작하는 마음을 정리해 본다.

### 내 가슴의 한 구절

아이는 넉넉한 엄마의 품을 만나야 잘 자라고, 자동차는 운전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잘 달리며, 시냇가 옆의 밭은 물을 잘 대주는 농부를 만나야 비로소 열매를 잘 맺는다.  
- 베르톨트 브레히트(희곡 '코카서스의 백묵 동그라미' 중에서)

삶의 보편성은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지닌 욕구와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모두 기본적인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집과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길 원한다. 이 보편성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타인들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유념해야 한다. 우리의 공동체 활동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렇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활동이다.



## 그 봄도 봄이야

추위도 너무 추웠다.

교과서에 배운 삼한사온(三寒四溫),

이제는 삼한사한(三寒四寒)으로 바뀌야 한다.

봄이 간절하다.

천기(天氣) 조화는 하늘의 뜻일테고,

타일 벽화로나마 서둘러 따스한 봄을 느낀다.

무릉도원의 아이가 뛰다.

아이의 입 꼬리에 이미 봄은 와 있다.

(중구 도원동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